소멸 너머 예술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멸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너머 지역활성화 사업 아카이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

ISBN 979-11-988897-4-2

소멸 너머 예술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아카이브

CONTENTS

020
여는 글
함께 만들고 경험하며 공유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관계인구 | 김영석

PART 1.
지역 예술 만남

026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넘나들이 | 고성문화재단

052
다시 예술이 움트는 섬 | 노마도르

076
환대를 통해 열리는 다채로운 세계 강화 유니버스 | 협동조합 청풍

100
'날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 그리고 예술 |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22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모두의 예술 놀이터 | 클라우드 컬처스

144
조만간, 이곳 우리의 강진으로부터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PART 2.
문화예술 탈중심을 향하다

172
지역의 '공기'를 바꾸는 문화예술의 힘 | 고영직

180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현재와 과제 | 김민경

190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문화예술 세계 도시와 충주 | 신재민

200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예술, 극단 '큰들'과 산청마당극마을 | 권재현

210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응봉산 (Eungbong Mountain)


오리온 초코파이 情
오예스
크라운산도
아가렛트
참치
보석
라면
새우탕
SPAM


TEFF
THE EAST FILM FESTIVAL 2024
제6회 우리나라
가장동쪽영화제
The Origin of Island : ULLEUNG
THE EAST 6th
FILM FESTIVAL
2024
THE EAST FILM FESTIVAL 2024
제6회 우리나라
가장동쪽영화제
TEFF




YAMAHA






四宜齋

함께 만들고 경험하며 공유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관계인구

김영석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사업 평가위원

기대와 실현, 지속가능성부터 시작된 관계인구

올해 초부터 시작한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은 지난 4월 대상 지역 선정을 기점으로 한 해 동안 각 지역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웠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각 지역의 문화적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체류 인구의 유입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선정 지역은 단순히 사업비만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르코의 자문과 협력으로 사업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6개 지역은 107개 지방소멸위기 대상 지역 중 제안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제안서는 물론 현장 실사 과정에서 각 지역의 간절한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 선정은 전체 위원의 열띤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추진체의 역량을 신뢰할 수 있고, 기대 성과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최북단인 고성, 남쪽의 강진, 동쪽 끝 울릉, 서쪽의 강화 그리고 내륙의 태백과 영주 등이 전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각 지역의 단체에서 진행한 대표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성은 '아트케이션 페스타', 강진은 '조만간 콘서트', 울릉은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 강화는 '잠시섬 어드벤처', 태백은 '로컬디자인캠프', 영주는 '낭만주의 페스티벌' 등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열렸다. 또한 주요 내용 이외에도 개막행사에서부터 포럼, 공연, 상설 프로그램 등 여러 동반 행사를 연중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에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서로 간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각 사업지역을 방문하면서 마음에 남은 단어는 무엇보다 '관계인구'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관계인구의 의미는 도시에 살아도 지방에 사는 것과 같고 지방에 살아도 도시에 사는 것과 같은 관계를 서로 맺는 것이라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정주인구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

구를 유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기획되었다. 기획의 직접적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겠지만 관계인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추진 주체가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또는 공공이나 민간 단체든지 간에 본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만날 수 있었다.

정책적 사업의 대부분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혜택을 통해 외부 인구를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전 등 대규모로 재원을 투자할 때조차 그 효과는 신통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이번 사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바로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감성에 호소하는 문화예술의 힘은 추진 주체의 진정성을 통해 지역의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깨워내고 생동하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이어주고 확산시켰다. 더불어 사업단체들은 한결같이 지역민이나 예술가와 같은 사업의 직접적 참여자는 물론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관계 형성을 이끌었다.

환대를 넘어
함께 만들고 경험하며 공유하는
문화예술

이번 첫 사업이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기쁘지만, 걱정이 앞선다. 사업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렵게 맺은 관계는 당연히 옅어지고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단체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겠지만, 지속적인 후원 없이 그 효과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몇몇 단체는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추어 가고 있지만 나머지 단체는 단년도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나 아르코는 사업의 확산에 우선 집중해야 하므로 한 번 선정한 지역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단체가 이미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족을 붙이자면 관계인구의 형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체계적 관리와 소통이 필요하다. 방문객을 지역 사업의 후원회원으로 참여시키고 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기념일을 기억하고 지역의 생산물이나 관련 대소사를 전하며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장단기 체류를 유도하는 여러 방안도 계속 제시해야 한다. 한 번의 인연이 평생의 벗으로 이어져야 관계인구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지켜보면서 관계인구는 환대하는 마음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경험하며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맥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다. 지방과 도시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를 만들며 상생하는 세상을 기대하며 여는 글에 대신한다.

PART 1

지역 예술 만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고성문화재단

노마도르

클라우드 컬처스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청풍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누나들이
고성
문화
재단
682-0670
고성군
KBS
김영철
동네 한바퀴 방영
휴식과 창작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고성의 시도
821

예술가를 불러모으는 지역, 고성

"예술인은 고성을 좋아한다. 고성은 예술인이 필요하다. 시작은 이 두 명제로부터 비롯됐어요."

고성문화재단 곽은선 팀장

북쪽으로 이어진 7번 국도를 따라가면 명파마을을 만난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빨간 검문소 간판을 마주하고 차를 돌리지만, 기어코 막다른 길을 찾아 오르면 휴전선에 접한 명파해변에 닿을 수 있다. 고성문화재단이 고성군 아트케이션 사업의 첫 시작점을 명파로 선정한 데는 마을이 가진 특수한 장소성이 한몫했다. 검문소 너머의 접경지역까지 마음이 이끌리는 사람들. '예술가가 머무르고 싶은 장소는 가기 편한 곳이 아니라, 좀처럼 가기 힘든 곳이 아닐까?' 고성문화재단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성을 찾는 이들에게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실제로 고성군은 오랜 기간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었지만 2023년 말부터는 총인구 27,305명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귀촌인 증가율 전국 30권에 속했으며, 팬데믹을 기점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꾸준히 늘었다. 2022년에는 누적 방문객 수 1,3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고성문화재단은 특수개발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고성군이 가진 독특한 환경이 활동력 넘치는 신중년과 청년 크리에이터의 유입을 불러왔다고 평가한다. 특히 꾸준히 늘고 있는 재방문 인구에 주목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극장에 공연을 선보이거나 찾아가는 예술 교육에 집중하던 고성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 내 공연장이 세 곳, 전시장은 두 곳에 그쳐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에 한계를 느끼던 차였다.

"MBTI로 말하자면 고성은 'T'보다는 'F' 성향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지역이에요. 고성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한 명파마을은 더욱 그렇죠. 고성문화재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찾아오기는 더욱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찾아오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고성에 와서 머물게 하자. 예술가는 고성을 좋아하니까. 예술가들이 만든 결과물을 지역 주민의 일상 공간에 펼쳐놓고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고성 아트케이션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업이 구체화된 후에는 가장 먼저 명파마을을 선정했고요. 예술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명파마을이 정말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자로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장소들이 보이더라고요."

고성문화재단 곽은선 팀장

예술이 지역에 스며드는 법

7번 국도 끝에 다다르면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오른쪽에는 철책이 보이는 고요한 해변과 명파아트호텔이 있다. 왼쪽으로 접어들면 명파마을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활기를 띠던 시절 낸 널찍한 길 위로 금강산 슈퍼 하나, 식당 하나, 학교 하나가 전부다. 그 시절을 가늠케 하는 커다란 민박집 간판은 대부분 이름만 남아 있다.

'아트케이션 고성'는 열두 명의 예술가들이 이 두 갈래의 공간을 골고루 경험하며 고성이 가진 '평화'의 키워드를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표현하는 프로

그램이다. 시각에서 건축·디자인·공예·다원·음악 등 저마다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은 먼저 '한 달 살기 명파'를 통해 명파아트호텔과 마을 민박집을 차례로 머물며 명파마을을 경험하고 영감을 얻는다. 이후 '레지던시 명파' 기간 동안 마을 일대에 연극, 음악회, 전시 등 다양한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과물은 '아트케이션 페스타' 기간 동안 외부 지역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입주 예술가들의 한 달 살기를 주관한 달홀문화협동조합 신용윤 대표는 예술가들이 명파마을에 스며드는 과정에서 '내부자'로서 시선을 갖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한다.

"처음 한 달 살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술가에게 마을의 정서적인 부분을 경험적 자원으로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청받은 예술가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마을을 감상하고 작업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지역주민과 괴리감이 생겨나요. 명파마을은 실향민을 비롯해 역사적 질곡을 겪은 분들이 많기에 자칫 틀에 박힌 시선으로 바라보기 쉽거든요. 이런 편견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명파아트호텔에 머물다 명파마을 민박집으로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을 매칭해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했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기대했던 분도 계셨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내버려 두기도 하면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셨죠."

달홀문화협동조합 신용윤 대표

"예술가들이 온다고 했을 때, 다 좋아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도통 들어오질 않으니까 누가 온다는 것만으로도 반갑잖아요. 다들 명파까지 왔다가 바다만 보고 가지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없거든. 조용한 게 좋아서 7년 전에 여기로 귀농을 왔는데, 막상 진짜 너무 조용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예술가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밥도 먹고 일대일로
친구도 되니까 다들 살맛 난다 그래요. 와서는 우리 사는
얘기도 물어보고, 마을 얘기도 물어보고 말도 걸어주니까 뭐.
너무 좋지. 더 바랄 게 없지."

수선화 민박 오선희 님

한 달 살기가 레지던시 과정로 이어지는 동안, 극단 루트가 아트케이션의 또 다른 트랙으로 함께했다. 극단 루트는 명파마을을 오가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채집해 창작극 〈명파환상곡〉을 제작했다. 금강산 슈퍼 김대선 개발위원장의 피란 시절 기억과 2008년 관광객 사고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당시의 이야기, 시내 병원이 멀어 아이를 잃은 주민의 아픈 기억이 저녁 밥상에서, 마을 어귀의 평상에서 차곡차곡 쌓였다. 연출가와 배우들이 직접 주민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내며 아트케이션 프로그램을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켰다.

"고성문화재단에서는 이전에 아트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 거주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주민의 열정과 참여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레지던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과 소통하는 예술가도 있지만, 수행하듯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도 계세요. 마을 분들은 일단 예술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겨주지만 그래서 '뭘 하지?' 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극단 루트가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밤늦게까지 창고를 개조해 극장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하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칫 유리되기 쉬운 예술가와 주민을
연극이라는 매개로 엮어준 셈이죠."

고성문화재단 곽은선 팀장


FLIP
SPEEDBOX



'우리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른다'는 감각은 명파마을 주민을 호스트에서 주인공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아트케이션 페스타 전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꾸미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도 마을 주민들이었다. 예술가의 무대가 아닌 모두의 축제라는 인식이 이끌어낸 제안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구성을 위해 저희가 가장 늦게 합류했는데, 당시에도 마을의 모든 공간을 사용하진 못했어요. 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당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공용창고가 열렸죠. 창고에서 김유라 작가님이 명파의 이야기를 담은 VR 게임을 시연하셨는데, 뭔가 더 선보일 게 없을까 하다가 마을 분들이 집집마다 요강도 꺼내 오시고, 촛대도 꺼내 오셨어요. 나중에는 마을 분들이 '우리가 노래라도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셔서 합창 무대를 마련했고요. 페스타를 준비하면서 계속 와서 들여다봐주시고 간섭해 주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프로그램은 예술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주민의 참여가 있어서 비로소 완성된 셈이죠."

빛나르고 정미현 대표

명파에서 길어 올린 예술밥상, 아트케이션 페스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아트케이션 명파는 금강산슈퍼와 마을 공동창고를 비롯 마을 내 16개 공간을 개방해 열렸다. 금강산슈퍼 매대에는 상품 사이사이 마을 주민을 주인공으로 한 드로잉이 자리 잡았고, 민박집에서는 작가가 직접 도슨트로 나서 관객과 소통하는 전시가 열렸다. 관객은 민

박집과 슈퍼, 때로는 마을 주민의 집안으로 들어서 전시를 관람하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명파를 처음 방문한 사람도 마을을 깊게 이해하는 시간. 지역과 외부의 관계 맺기는 예술을 매개로 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됐다. 고립된 마을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누구보다 반긴 이들은 바로 주민이다. 〈명파환상곡〉이 무대에 오르는 동안 극장이 가득 차 더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창고 주변을 서성이며 '공연보다 우리 마을에 사람이 이렇게 북적이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다' 던 주민들은 입을 모아 '꿈같은 밤이었다'는 소회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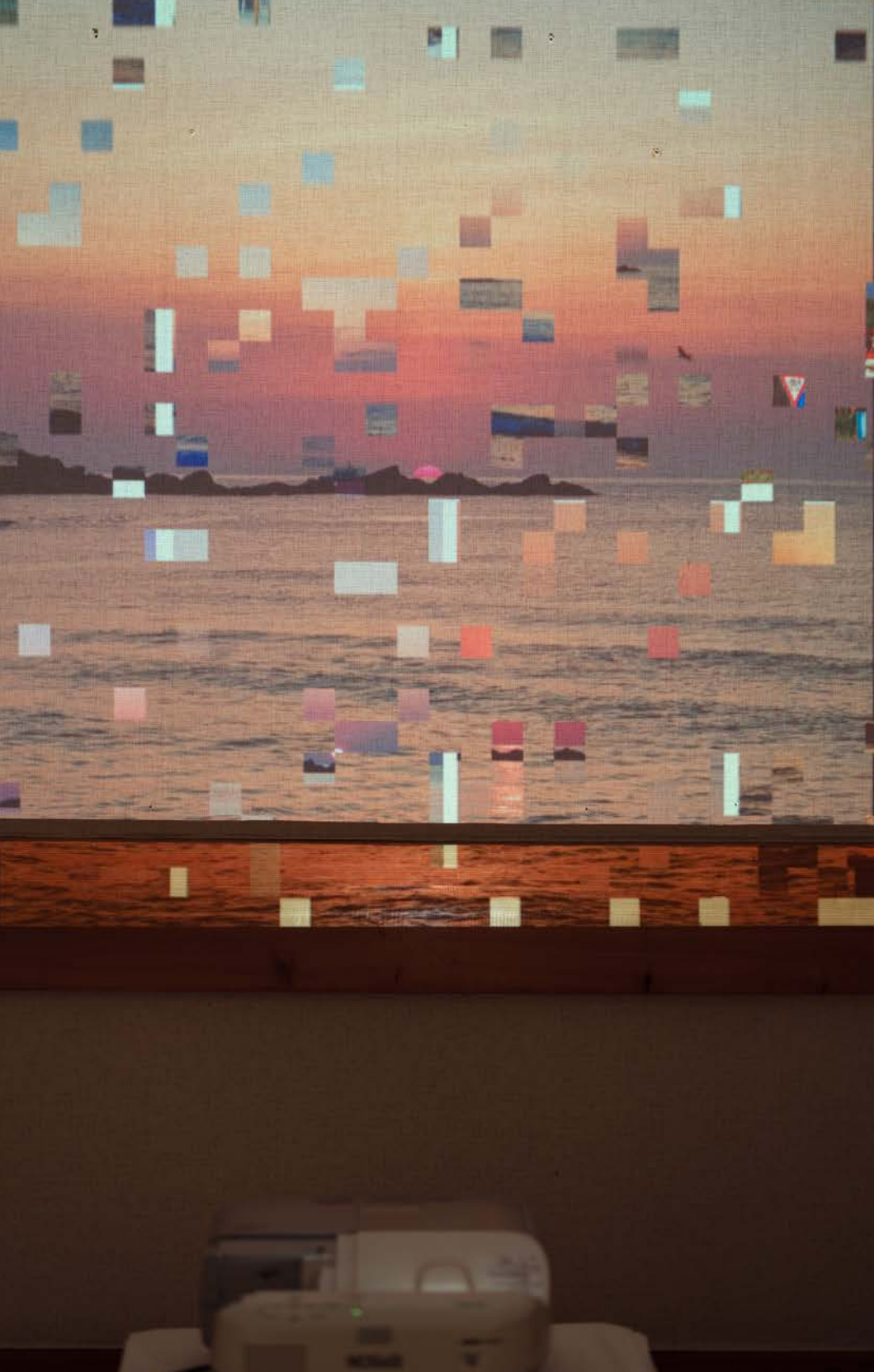
성황리에 열린 페스타를 끝으로 고성문화재단의 아트케이션 프로그램은 짧고도 길었던 6개월 여간의 완주를 마쳤다. '꿈'에서 깨어날 시간. 마을을 가득 채우던 예술가들은 어디로 향할까?

"명파주민만의 단단함이 있어요. 고락의 세월을
겪어온 분들 특유의 애틋함이죠. 처음엔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니 정 주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떠날 걸 아니까 인사도 데면데면 받으시다가,
이제는 전입신고하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다시 다른 마을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아시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직접 가서
만나겠다고도 하시고요. 이제 숙제는 저희들의 몫입니다.
연극이든, 시각예술이든 저희가 하는 활동은 예술인 동시에
삶의 행위들이니까요. 아트케이션의 긴 과정을
사흘 간의 페스타에 담아내고 난 후의 막막함을 견디고
다음을 생각할 차례죠. 저희 작업이 지원사업에 기대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명파에서의
경험을 축적해서 보완하고 펼쳐갈 수 있는 지속성이
담보되길 바랍니다."

달흘문화협동조합 신용윤 대표




SEEK
ADVENTURE
ICONIC



"페스타가 끝나면 작가와 배우들이 다 명파를 떠날 줄 알았는데, 남아 있어요. 곧 다른 마을에서 명태축제가 열릴 예정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사람도 있고요. 극단 일을 도와주러 왔던 한 친구는 얼마 전에 보니 명파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더라고요. 레지던시는 끝났지만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 떠났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명파의 남은 시간을 채워가겠죠. 한번 살아본 경험은 반드시 그리움을 남기니까요. 비록 연극은 끝났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긴 시간 준비한 끝에 막을 내린 <명파환상곡>이 계속 상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극단루트 조희봉 연출가

고성문화재단은 지역 내 다양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아트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예술가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만들어낸 질 좋은 콘텐츠가 고성에 또 다른 방문객을 불러올 거라 믿는다. 자신이 속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문화예술의 판은 커진다. 고성 아트케이션 프로젝트는 명파를 넘어 또 어떤 마을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리움'을 남기게 될까? 예술과 마을을 잇는 고성문화재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세련되거나
편리하지
않은,
그래서
낭만적인

고성문화재단 정은선 팀장



고성문화재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고성문화재단은 면적의 70%가 숲인, 동해안 가장 긴 해변의 생태를 가진 고성을 문화예술로 채워가는 기관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로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연결하는 촉진자로서 고성을 문화도시로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트케이션 역시 고성 지역을 다양한 문화예술로 채우고, 새로운 정주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고민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처음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모집하며 참여 예술가분들께 머무는 기간 동안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트호텔, 민박, 펜션 이 세 장소를 옮겨가며 머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며 밀어붙였는데 의외로 그 지점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해변에서의 작업을 마을로 가져온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의 집에서 머물며 공간을 하나의 전시장으로 활용한 분도 있었고요. 금강산슈퍼는 전시장인 동시에 버스킹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마을로 머무는 공간이 옮겨가고 난 후부터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이야기를 주민과 '공모'하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 낭만적인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죠.

사업을 주관한 축제공연팀이 올해 신설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려움도 많았겠죠.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의 사유지를 활용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번 페스타에서도 마을의 폐창고를 활용해 공연을 올렸는데, 주인분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는 창고를 공연장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고요. 지역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휴 공간을 내어주는 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에 걸맞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유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내어줬을 때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끝에서 발견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터뷰를 하러 오는데 사업 끝나고 작별인사를 나눴던 분을 만났어요. 다음 날 떠나신다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가셨더라고요. 물론 언젠가는 떠나시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머무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트케이션 참가자를 비롯해 극단루트, 달홀, 빛나르고까지 명파에 예술가들의 네트워킹이 생겨나고, 그분들이 또 새로운 친구와 가족을 불렀어요. 명파를 넘어 거진이나 대진까지 나가 단골 가게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었죠. 떠난 후에도 다시 찾아올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드렸다는 거. 어떤 가능성 하나를 예술가들의 마음에 남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렇게도 또 다른 고향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아트케이션 페스타 그 이후의 네트워크

극단루트 김소진 대표 빛나르고 정미현 대표 달홀문화협동조합 신용운 대표



아트케이션 페스타를 마친 소감이 궁금해요.

신용윤 어떻게 보면 고성 아트케이션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었기에 시원함보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물들이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질지 가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떠오르고 마네요. 명파에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을 바꾸려는 행동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서로 인사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주민 스스로가 예술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랐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명파에 더 깊게 스밀지는 예술가의 몫이고요. 모든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큰 갈등 없이 그간의 과정을 완주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김소진 지역주민, 기관, 예술가들이 한 마을에 모여 이렇게 긴 작업을 해 본 것은 저희도 처음이에요. 돌아보니 연극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 예술가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저희는 그저 열두 분의 예술가를 장르만 파악해서 우리와 협업할 수 있는지 따져봤던 것 같아요. 아마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을 이장님의 색소폰 연주를 무대에 올린 것처럼 예술가의 다양한 면면을 무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어요.

정미현 저희 '빛나르고'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페스타 전체 현장 조성과 운영을 맡았는데요. 페스타를 하나의 축제로 생각하면서 마을 전체를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경험이 뜻깊었습니다. 기존에 배너를 세우거나 대형 현수막을 세우는 문법에서 벗어나 마을의 자투리 자재를 활용해 이정표를 만들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었어요. 저희의 계획과 마을 분들의 생각을 겹쳐보면서 같이 마을을 꾸며보는 시간이었달까요? 재미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아트케이션을 기다리며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신용윤 지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머무름으로는 큰 성과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프로그램이 쌓이며 어떤 가능성을 남겼는지 관련 협력단체와 주민, 예술가 등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정 기간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소진 마을에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배우도 연출가나 미술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도 자신의 작업을 넘어선 몫을 해야 하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가능성을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이 꾸준히 다음,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완성된 결과물이 계속 상영되거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합니다.

정미현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마을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 지 깊이 고민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소재가 마을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고심했고, 페스타에 사용된 표지판도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전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어요. 마을에서 축제나 예술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설치물이 철거되는 과정 자체가 주민에게 일종의 상실감으로 남기도 합니다. 페스타 이후에도 마을에는 주민이 계속 살아가기에, 무엇을 남기고 또 철거할 지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계자들의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예술이 움트는 섬



노마도르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

울릉도에는 극장이 없다. 영화관에 가려면 강릉이나 포항으로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울릉도에서 강릉까지는 배편으로 3시간 반. 영화는커녕 가벼운 외출도 좀처럼 마음먹기 어려운 섬에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가 막을 올린 건 2019년부터다. 처음은 울릉군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노마도르가 설립한 해다. 울릉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던 박찬웅 대표는 '영화에 대해 아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 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정동진을 비롯해 지역의 작은 영화제를 찾아봤어요. 울릉도는 워낙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기도 했고, 마침 노마도르가 있는 헌포항에 스크린을 올리면 딱 좋을 만한 공터가 있었죠. 영화에 대해 더 잘 알았다면 첫 영화제는 실내에서 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화제가 끝나고 난 후 다들 스크린 뒤로 비치는 헌포항의 노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용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마도르 박찬웅 대표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는 울릉에 입도해서도 섬을 반 바퀴 돌아가야 닿는 헌포항에서 열린다. 바닷가 한켠에 펼쳐진 스크린과 간이의자, 울릉도 유일의 수제맥주 양조장 울릉브루어리를 필두로 작은 이벤트 부스도 자리를 채운다.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조용하던 항구마을은, 여름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이 되자 사람의 발길로 분주해진다. 어느덧 마당을 꽉 채운 관객 대부분은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지만 마을 주민도 많다.

"울릉도에서 영화를 보려면 육지로 나가야 해요. 군민회관에서 가끔 영화를 상영해 주긴 하는데, 이쪽 동네 사람들은 또 시내까지 나가야 하니까 여의치 않죠. 여긴 다섯 시만 넘어도 캄캄하고 조용하니까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다 나와봐요. 오늘은 해녀 영화를 틀어준다고 해서 내가 이웃집 아주머니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 이런 구경이 또 어디를 가서 해."

김은자 님

2024년 6회를 맞이한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는 '울릉, 섬, 자연'을 주제로 열렸다. 총 207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12편. 개막작으로는 울릉도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주민의 삶을 다룬 〈우리집 앞바다〉가 선정됐다. 영화제가 개막작으로 온전히 울릉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상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쪽(EAST), 새로운 시작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한 1회 차에서는 총 6편의 단편영화와 3편의 상업영화 초청작을 상영했다. 이후 환경, 고립 등 다양한 주제를 이어왔지만 울릉군 주민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라는 방향성에 맞춰 상업영화 등을 골고루 배치해 흥미를 유도했다. 그리고 6회 차를 맞이한 영화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받은 출품작을 공모해 울릉도에서 상영하는 방식을 벗어나, '울릉'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고 울릉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선보인 것이다. 비록 2024년에는 울릉도를 주제로, 울릉에서 생산한 작품이 1편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목표로 울릉도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서너 편의 영화를 선보이려 한다.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섬이 아닌 문화비축기지가 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면 어떨까? 노마도르가 여러 방향성을 모색한 끝에 얻은 결론이다. 섬이 가진 잠재력이 예술가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면 섬의 체류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테니까. 실제로 노마도르는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6회 우리나라
기념종묵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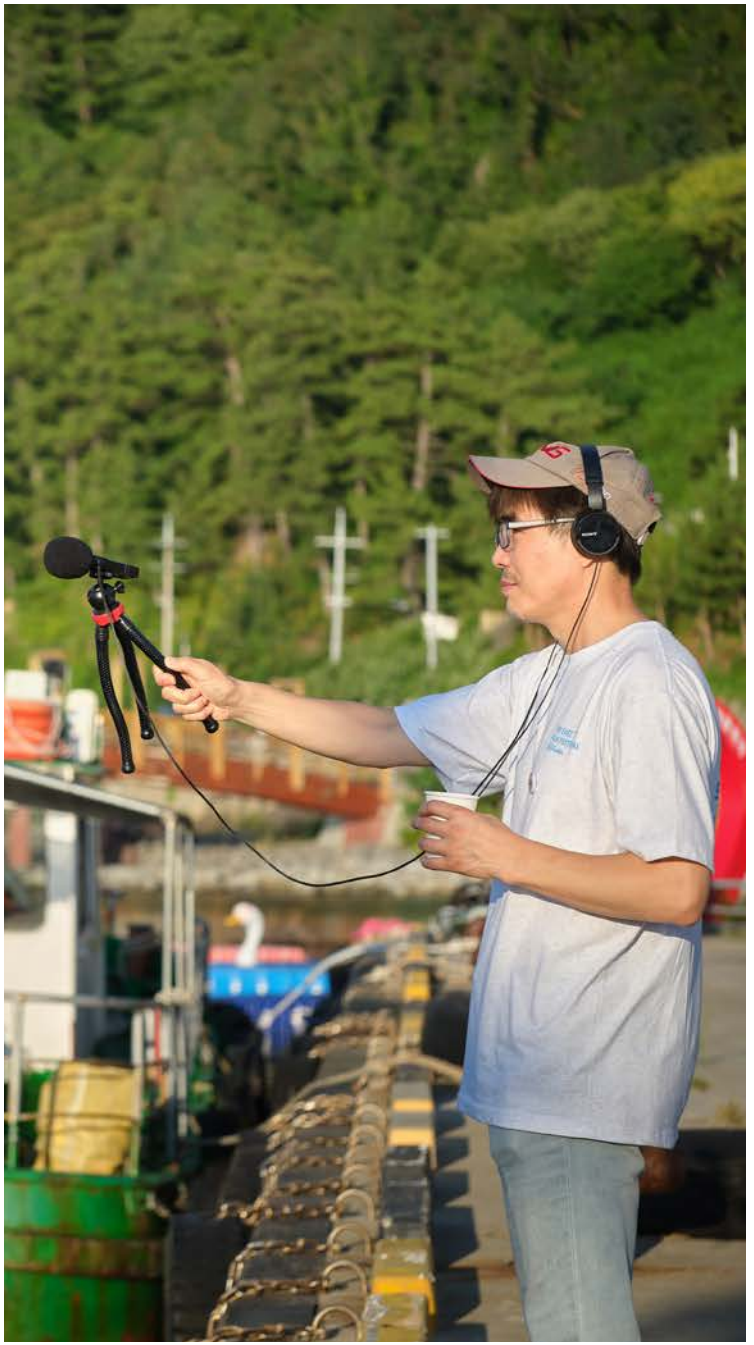
또 다른 삶을 위한 자발적인 고립

"저도 처음엔 외지인이었어요. 대전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고 일하면서도 어딘가 늘 다른 곳을 생각했죠. 여기만 아니면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탐색하다 '울릉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당시 경상북도에서 대학교와 결연해 울릉도의 폐교를 코워킹스페이스로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그 테스트베드였죠."

노마도르 박찬웅 대표

울릉도 쾌속선에 몸을 싣던 당시만 해도 박찬웅 대표는 울릉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보지 않았다. 미지의 세계에 마음껏 이끌려보자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착한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무뚝뚝한 불편으로 그를 매료시켰다. 가도 가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고요한 해변과 이르게 내려앉는 저녁, 캄캄한 고요가 주는 고립감에 마음이 이끌렸다. 무작정 섬을 걷고 또 걷다가 발견한 헌포항은 박찬웅 대표에게 정착에 대한 기대를 안겨준 장소다. 마침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맞는 동료들도 만났다. 한 달 살기가 끝난 후에도 몇 번이고 다시 울릉으로 향하는 배에 오를 즈음에는 비로소 '울릉에서 같이 뭔가 하자'고 뜻이 모였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면 주거만큼이나 일자리가 절실했다. 서울에서 소셜벤처를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동료들과 노마도르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 모델은 '울릉살이'를 콘텐츠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시작됐다. 이후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울릉도를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 '자발적 고립'과 '네트워킹'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했다. 경상북도 사업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통해 지원비를 받았다. 헌포항에 숙박형 베이스캠프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외지인이 시작하는 로컬 사업에 지역 주민의 오해도 있었다.





박찬웅 대표는 노마도르의 정주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파이를 빼앗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다. 적극적으로 지역 어르신의 일손을 돕고, 집집마다 찾아가 음식을 나누기도 했다. 노마도르 베이스캠프 운영 콘셉트가 관광형 숙박이 아닌 2주에서 한 달간 거주하는 프로그램형 숙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자가 머무는 동안에는 지역 레저 업체와 연계해 해변 요가나 오징어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근 맛집이나 숙박 소개도 잊지 않았다.

"처음엔 왜 동네를 어수선하게 하냐고 말씀하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울릉도 사투리가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들려서 위축도 됐죠. 울릉에 와서 한동안 심적으로 침잠하는 시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늘 동네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심 궁금하셨나 봐요. 밤에는 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 서울에 간 것 같진 않은데 얼굴을 안 비춘다고 나중에는 문도 두드려 보시고, 음식도 먹어보라 하시고. 도시는 늘 북적북적해서 누가 혼자 있어도 티가 나질 않아요. 여긴 사람과 사람 간 물리적 거리는 훨씬 멀지만 표가 나죠. 고독한데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감각을 원하는 누군가가 울릉도를 알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마도르 박찬웅 대표

노마도르는 서울과 강릉, 울릉에 사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화제를 열 때는 울릉에 모이고, 별일이 없으면 각자 원하는 지역에 머물며 일한다.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울릉도에서 지낼 수 있는 삶. 노마도르가 지향하는 거주 방식이다. 사업을 운영하며 알게 된 이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다 일손이 필요한 굵직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기꺼이 힘을 보탠다. 울릉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연대. '릉릉위크'는 노마도르의 이러한 지향점을 다양한 예술가 및 로컬 창작자와 공유하기 위해 2021년 열렸다.

강릉과 울릉에서 끝 글자를 따온 '릉릉위크'는 일주일간 다양한 창작자가 두 지역에 머물며 보내는 축제다.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열리는 '버닝맨(Burning Man)'이 영감을 줬다. 버닝맨은 9일간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예술 축제로, 참가자들은 캠프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며 작품을 만들고 마지막날 이를 모두 불태운다. '자유와 연결의 일주일'을 주제로 한 릉릉위크에서는 로컬 작가와 크리에이터가 강릉에 머물며 야외 전시(릉릉웨이브)와 야외 워크숍(릉릉크래프트)을 열고, 울릉으로 넘어가 나리분지·헌포항·도동 일대를 돌며 퍼레이드를 펼쳤다. '릉릉 어드벤처'와 '릉릉 플레이'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만났으며, 릉릉위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판매하여 수익 모델을 꾀하기도 했다.

릉릉위크는 울릉도에 도착해 여정의 진면목을 발휘했다. 70명의 참가자가 입도해 섬 구석구석을 돌며 퍼레이드를 진행한 것. 골목 구석구석 상인과 주민들이 나와 즉흥으로 펼쳐지는 퍼레이드에 합류하는 순간, 뜻밖의 예술적 경험이 주는 즐거움과 에너지가 섬을 가득 채웠다. '지역'을 중심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몸의 기억에 새기는 일. 울릉은 그렇게 멀지만 꼭 다시 돌아오고 싶은 섬으로 남았다.

릉릉위크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정주 프로그램이었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게임형 체류 프로그램을 모색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아웃도어 추리 게임으로 진행된 '미스터리 울릉'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빛을 발한 프로그램이다.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장소에서 연필과 요원목걸이, 배지, 책 등이 들어 있는 요원 키트를 수령하고, 책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 추리 문제를 해결하는 액션 게임으로 섬 곳곳을 자원으로 활용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팬데믹이 한창인 시기, 숨통 트일 곳을 찾아 나선 방문객 덕분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던 울릉과 노마도르는 이제 다시 지속가능한 생존법을 모색하고 있다. 펜데믹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며 다시 고요해진 지금, 노마도르가 울릉을 소비처가 아닌 생산주체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섬이 가진 단절성은 노마도르에겐 한계인 동시에 기회이기 때문이다. 노마도르는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적절히 연계해 새로운 미래를 생산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학교를 찾아가 영화나 음악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울릉을 모티프로 한 예술 작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에요. 섬 특성상 방학이나 겨울에는 육지에 머무는 주민이 많아서 이런 특성을 저희의 프로그램 안에 잘 밀착시키는 일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영화제나 음악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예술가들이 울릉을 토대로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울릉도는 우연히, 알음알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가 정착하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예술가에게도 울릉이 창작하기 좋은 곳이라는 입소문이 많이 나길 바라요. 그 이후의 경험은 이 섬이 알아서 이끌어줄 테니까요."

노마도르 박찬웅 대표

한여름의 영화제가 끝난 자리에, 가을 음악제가 문을 열었다. 10월 26일 울릉천국 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 어쿠스틱 음악회 '울릉뮤직포트럭'이다. 음악회에서는 싱어송라이터 허정혁과 여유와 설빈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울릉도의 자연과 환경,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발표했다. 또 울릉도 내에서 활동 중인 통기타 동아리 '울릉통사모'와 울릉중학교 학생 밴드가 울릉도의 정취를 테마로 한 '울릉 플레이리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노마도르는 울릉뮤직포트럭 축제가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와 더불어 창작자와 향유자를 섬으로 불러 모으고, 느슨한 연대로 머무르게 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머무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사람에게는 환대의 기억이, 울릉도에는 예술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느슨한 연대가 끊임없는 발길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시 오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언젠가는 꼭 살아보고 싶은 섬 울릉의 기억이 오늘도 다채롭게 채워지고 있다.

INTERVIEW

섬에서 예술하기, 함께 일하기

노마도르 박찬웅 대표



노마도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노마도르는 누구나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 울릉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팀입니다. 울릉도의 인물, 길, 상점,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많은 사람에게 울릉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 기반으로 뭉치고 흩어지기도 하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울릉에 있지만 다른 팀원들은 울릉이나 강릉, 서울 등 자유롭게 머물며 섬 안팎의 가능성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노마도르는 처음부터 '문화예술'에 방점을 찍은 팀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했어요. 울릉도에 정착하고, 이 섬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알리고 싶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분야로 이어지더라고요. 로컬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에 문화예술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특히 울릉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고유한 역사 등 자원이 풍부하지만 제주도와 같이 큰 섬에 비해 창작물로 남은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만큼 문화예술 차원에서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방증이지만요.

지역에서 활동하며 '섬'이 가진 장단점을 두루 느끼셨을 것 같아요.

찾아오기 힘들다는 말은 그만큼 원하는 대로 고립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 역시 울릉도 특유의 고요가 좋아 찾아왔고요.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 울릉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는 좀처럼 그 고요를 잃지 않았어요. 울릉도 사람들의 투박함은 누군가에겐 불친절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무심한 배려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이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섬을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생각보다 방문객의 발길을 반가워하신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제와 음악회를 무사히 끝낸 소감이 궁금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올 한 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분들이 저희의 콘텐츠가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거든요. 지역 주민의 이런 믿음은 저희가 초대한 방문객에 대한 환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인연이 이어지며 노마도르의 테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울릉도가 '관광예술섬'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low, 섬이 이끌어준 음악의 파동

청월령 작곡가



뉴에이지를 기반으로 작업하고 계시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독학으로 피아노를 처음 만나 뉴에이지에 빠져들었습니다. 2017년에 데뷔했고, 벌써 13년 차가 되었네요. 청월령이라는 활동명은 '푸른 달의 영혼'이라는 뜻인데요. 어릴 때부터 달을 좋아하기도 하고, 달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이 많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곡을 쓰며 작곡가이자 유튜버, 팟캐스터, 브런치스토리 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14 트랙을 담은 일곱 번째 정규앨범 'Small room and old piano 2'를 발표했습니다.

울릉도와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요.

2023년 1월, 처음 울릉도에 왔어요. 서울에서 오래 피아노 레슨을 진행했는데, 어느 날 수강생 분이 울릉도로 이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울릉도를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처음 울릉도에 방문했습니다. 작업과는 관계없이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죠.

첫 방문에서 노마도르와 인연이 닿았네요.

울릉도에 막상 와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나리 분지에 1m도 넘는 눈이 쌓인 풍경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예요. 초대해 주신 분의 인연으로 노마도르 예술인 레지던시를 알게 됐고, 4일 정도 머물면서 만난 사진작가와 프로필 촬영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울릉을 테마로 한 곡도 쓰게 됐고요. 'flow'는 울릉의 바다를 모티프로 한 곡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바다의 흐름에 관해 사유하면서 풀어냈어요. 노마도르의 초대로 이번 '우리나라 가장동쪽 영화제'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에 벌써 네 번째 방문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다음으로는 즐거워서 왔어요. 섬이 가진 자연도 좋지만 예술인 레지던시에서 다른 크리에이터를 만나고 소통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또 다른 협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곡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연주를 계속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니 계속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동안 태안이나 속초, 공주 등 지역에서 주관하는 몇몇 예술가 레지던시를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제 작업의 품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노마도르는 지역을 기반으로 곡이 탄생하고, 그 곡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꾸준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화대를 통해 열리는 다채로운 세계

강화 유니버스 협동조합 청풍







길을 비켜났을 때 만난 '연대의 섬'

'고향(故鄕)'이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정의가 따라붙는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그렇다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낯선 지역을 고향으로 삼을 수도 있을까? 협동조합 청풍은 '고향'을 혈연적이거나 물리적인 공간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이 살고, 머무르는 공간들이 도통 '고향'적 경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19세~34세의 청년층 42.6%가 스스로 주거와 경제, 노동, 건강 등의 측면에서 빈곤층이라고 응답했다. 청년이 스스로 뿌리내린 공간을 안락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환경은 청년 스스로 원하는 삶을 실험해 볼 금전적·시간적 여유를 앗아갔다. 협동조합 청풍은 도시와 지역을 표류하던 청년들이 강화에 모여 함께 벌어먹고 기대 살 궁리를 하기 위해 2013년 모였다. 강화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청년과 서울로 나갔다 다시 돌아온 청년들이 뒤섞인 채로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한 것이다. 강화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나갔다가 다시 섬으로 돌아온 파도 역시 '기댈 곳이 없다면 서로가 기댈 곳이 되어주자'는 마음으로 2021년 청풍에 합류했다.

"협동조합 청풍은 청년 그리고 그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살아갈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볼까 생각하며 모인 팀이에요. 지역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산을 형성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시작은 강화풍물시장 안에 문을 연 작은 피자집이었어요. 일종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한 거죠. 강화 특산물인

고구마나 쑥, 밴댕이로 피자를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고요. 당시 저희 가게 주변에 50~60대 상인이 대부분이셨는데, 늘 안쓰러운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하루에 피자를 한 판도 못 파는 날에는 찾아와서 주문도 해주시고 레시피도 고민해 주셨죠. 전국 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서던 시기였는데, 자발적으로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신 셈이죠. 사실 젊은 애들이 와서 뭘 한다고 하면 막연히 싫어하거나 배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는 함께 살아가볼 수 있겠구나 마음을 붙였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청풍 파도

강화풍물시장 상인들이 준 '환대'의 기억은 협동조합 청풍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련의 프로젝트에 정체성을 새겼다. 나고 자라지 않았어도, 단 한 번 잠시 머문다고 해도 '환대'의 기억이 있다면 사람은 지역에 마음을 붙이고 고향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환대의 기억은 다시 사람을 지역으로 불러 모을 테다. 청년들을 환대의 기억으로 불러 모으는 '잠시섬 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강화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가상이면서 동시에 실재하는 공간 '잠시섬'을 열고, 머물고, 경험하며, 연대하는 새로운 로컬 커뮤니티를 구축한 것이다. 게다가 잠시섬에는 강화유니버스라는 고유한 세계관도 존재한다.

"어느 날 문득 세상이 굳어 있고, 그 안에 갇혀 내 일상과 감각도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연결되어 말랑말랑하게 살고 싶었어요. 새로운 세계로 떠나자! 청년들은 여행을 떠났고, 뭔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섬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는 온전히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쉼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세계가 낯설었지만, 점차 동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시장상인, 동네상점과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About 강화유니버스 중에서

여행업이 아닌 환대업을 합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인식이나 세대 차이로 오는 불편한 경험도 따라붙곤 했다. 시장 상인회와 갈등도 존재했다. 이는 강화유니버스가 지금까지도 방문객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을 내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역에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들의 삶을 품을 그릇인 지역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잠시섬 프로젝트를 운영하던 초반, 청풍 구성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왜 그런 질문이나 말을 건네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도 계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반갑고, 청년들이 자식 같고 생각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그때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야기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강화에서 살아가며 저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화를 찾는 사람이 대부분 2030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중요했어요. 주민분들도 처음에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셨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로 인해 얻는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좋아하게 되셨죠. 잠시섬을 꾸준히 다시 찾는 발길에는 저희와 관계 맺은 지역 주민의 노력과 격려도 큰 몫을 했어요.”

협동조합 청풍 파도

협동조합 청풍은 2015년 강화대로 펍 스트롱파이어(현 강화유니버스 라운지)를 시작으로 게스트하우스 아삭아삭 순무민박, 지역굿즈 판매점인 진달래섬을 차례로 열고 생활문화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 외에도 지역주민, 청소년, 청년상점, 지역 예술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의 자산을 이어가는 문화기획도 시도했다. 여기에서 얻은 경험과 사람은 2024년 11월 기준 13기 참가자를 맞이한 잠시섬 프로젝트의 품을 키우는 기반이 됐다.

잠시섬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안적 삶을 찾아 소셜미디어를 디깅하다 강화를 알게 됐다고 말한다. 먼저 잠시섬을 찾았던 사람이 지인을 초대해 인연이 닿는 경우도 많다. 막연히 이곳이 아닌 어딘가를 꿈꾸던 사람들, 밀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관계에 지친 청년들이 이곳을 찾는다. 머무는 곳이 안전하다는 감각과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라는 미션이 주는 적당한 압박감은 방문객을 자유롭게, 또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잠시섬에 머무는 동안 강화유니버스가 제안하는 ‘(로컬)을 만드는 키워드11’을 완수하면 진달래섬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교환권을 지급하는데, 이는 참가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로컬)을 만드는 키워드11

(로컬) 내가 사는 동네를 아끼고 존중합니다.

(주체성)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존중)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서툴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다양성) 각자의 개성을 멋지게 바라봅니다.

(소통) 다양한 세대와 만납니다.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합니다.



(재발견) 미처 몰랐던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듭니다.

(생태) 생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환경) 개개인의 작은 환경실천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안심) 편안하게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즐거움) 재미있는 일을 함께 도모합니다. 동네 이웃들과 잘 놀겠습니다.

(연결) 유니버스 속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이웃입니다.

발길이 이어지면서 섬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깃들었다. 비건 메뉴를 출시한 식당과 카페가 40여 곳으로 늘었고, 다회용기 포장이 가능한 가게도 45곳에 달한다. 잠시섬 유니버스가 주최하는 50여 개 프로그램에는 지역 예술가 외에도 상인이나 이야깃거리가 많은 주민이 호스트가 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강화유니버스가 추산한 잠시섬 연간 방문객(유치 관계인구)은 1,200명. 그중 지인 추천이나 재방문율은 60%가 넘는다. 골목경제 활성화 추산액도 연 4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역을 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인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는가'(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일궈낸 성과다.

"지난 10년간 협동조합 청풍의 화두는 '실험'과 '생존'이었어요. 처음엔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트럭으로 고구마도 팔아보고, 피자집도 열고, 축제나 컨퍼런스를 기획해보기도 했어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본 셈이죠. 지역에서 사는 일은 새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일과 같아서, 때로는 선을 긋기 위해 연필을 만들 석탄부터 캐야 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전들 덕분에 우리만의 방식이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얻은 결론은 '지역에 애정을 품고 있는 팬'이었습니다. 강화에 거주지를 두지 않아도 꾸준히 다시



찾아오고, 관심을 갖는 팬. 즉 관계인구가 늘면 지역도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고 느슨하게 연대하며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협동조합 청풍 마담

지금 여기, 강화유니버스에 접속하시겠습니까?

협동조합 청풍은 잠시섬 프로젝트와 함께 '잠시섬 어드벤처', '널불러지금 콘서트'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의 잠시섬 프로젝트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강화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잠시섬 어드벤처는 '팬'을 위한 축제 같은 콘텐츠로 잠시섬에 1회 이상 머물렀던 이들과 그들이 초대한 동행의 참여로 완성된다. 어드벤처 기간 참가자들은 기존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외에도 미니 운동회나 숲멍, 요리, 콘서트나 북토크를 함께하고, 협동조합 청풍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잠시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화도는 미지의 섬 같아요. 저도 처음 잠시섬에 참여하기 위해 강화도에 내렸을 때는 생각보다 너무 작은 동네라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버스로만 올 수 있다는 게 불편했고, 도착하자마자 다시 올 일 없다는 직감도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강화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요. 친구에게 잠시섬을 소개해줄 때도 '분명 너도 여길 좋아하게 될 거'라고 말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잠시섬 어드벤처 참가자

잠시간의 머무름이 소멸해가는 지역에 당장 어떠한 답을 내려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시간을 축적하며, 환대의 마음을 지역 전체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지역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사람이기에, 강화에 더해진 애정과 마음은 반드시 보탬이 된다. 무엇보다 대안적 삶을 꿈꾸며 표류하는 청년들이 있는 한, 협동조합 청풍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파도는 말했다.

"누군가는 다녀가고,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머무를 수도 있겠죠. 저는 청년들에게 여기 이주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는 게 먼저죠.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에 함께하며 관계인구의 깊이를 더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었어요. 보다 긴 호흡으로 살아보며 지역에서의 삶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청년을 넘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강화가 아닌 곳에서 또 다른 유니버스가 탄생할 수도 있겠죠? 관계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믿고 저희는 계속 가보려고요."

협동조합 청풍 파도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환대의 힘

INTERVIEW

협동조합 청풍결, 파도, 마담



협동조합 청풍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협동조합 청풍은 지역의 전통, 특산품 등 다채로운 자원을 새로운 관점의 콘텐츠로 풀어내는 팀입니다. 지역 콘텐츠 개발 외에도 지역 아카이브, 로컬투어, 문화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세 명의 구성원이 이끌고 있지만, 강화에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누군가가 합류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하며 유연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유 마담은 청풍의 원년멤버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파도는 리더이자 잠시섬을 담당합니다. 결은 진달래섬을 맡아서 운영하고요. 저마다 롤이 있긴 하지만,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때로는 잠시섬에 머물러온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호스트가 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획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느슨한 연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모두 우리의 협동조합 청풍의 조합원이자 관계인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주민들과 함께하며 신기한 변화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의 모습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일례로 저희 섬에 방문하는 분들 가운데 10% 정도는 채식을 하시는데, '비건 그게 뭐냐'고 퉁명스레 물으시던 이웃 가게 분들이 언젠가부터 채식 메뉴를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섬을 찾는 분들의 지향성이 비슷하다 보니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얼마 전에 앤드씨어터의 전윤환 연출가 님과 협업해서 연극제를 진행한적이 있어요. 당시 프로그램의 초대로 홍콩이나 태국 등 해외 아티스트들이 찾아오셨거든요. 그중에는 정부로부터 예술 활동을 탄압받은 기억을 갖고 계신 아티스트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화에 와서 자신들의 창작활동이 지지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펴주는 주민들 덕분에 따뜻한 기억을 안고 간다고요. 환대를 경험한 게스트들은 지역 주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 반응이 기뻐서 다시 다른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타인의 친절에 대해 풍부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할 용기'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환대의 순환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고요.

지금 협동조합 청풍이 안고 있는 고민을 들려주세요.

올해 아르코와 함께하며 저희가 가진 방향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뾰족해졌어요. 잠시섬 어드벤처를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얻어낸 거죠. 다만, 지금까지는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운영 면에서 규모를 일정 상태로 유지해 왔는데, 그 이상으로 키워가는 데 걱정이 있어요. 빚도 걱정이고요. (웃음) 나머지는 전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약이나 방문객 관리를 외부 플랫폼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오는 사람들의 알고리즘이나 로컬 관광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볼 계획이에요. 여기서 얻은 유의미한 결과들이 빚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나자신
으로부터
떠나
옴, 시작되는
머무름

INTERVIEW

은영



은영 님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페이퍼 콜라주 기법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동시에 글도 쓰고 있고요. 아마 저를 글 쓰는 사람으로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노마드'라는 키워드로 잠시섬 11기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 밖에 미식가·예술가·모험가·기록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강화도라는 지역에 접속해 나라는 사람을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오기까지 망설인적은 없나요?

처음에는요. 강화에 이런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은 생겼는데 어쩐지 서울에서 좀 멀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남해까지도 가봤는데, 강화도가 심리적으로 더 먼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지인이 잠시섬에 다녀오고 좋았던 경험을 들려줬어요. 용기를 내서 잠시섬을 찾았죠. 막상 강화에 와서는 크루 분들이나 호스트 분들의 환대가 좋아서 자꾸만 다시 오고 있고요.

현재는 영감모임의 호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잠시섬에 머물며 다양한 호스트가 진행하는 영감모임에서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개인적으로 미술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영감모임을 열면서 앞으로의 미래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탐색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밀도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잠시섬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살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나요?

제 친구는 남해로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저 역시 공주나 안동·강화·제주까지 여러 지역을 고려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맥락 안에서 부딪히는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강화에 오면 자꾸만 접점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는 작업을 기억했다가 이번 아트마켓에 참여해 보라고 권하면서요. 사실 서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일에 대한 기회' 때문이거든요. 잠시섬에서는 계속 새로운 일을 벌이면서 적절한 때에 사람들을 연결하곤 해요. 어떤 지역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생겨나는 물음표들을 하나씩 느낌표로 바꾸어준달까요? 지금은 다시 다른 곳에서의 머무름을 탐색하고 있지만, 환대와 인연이 저를 어느 곳으로 당도하게 만들어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전히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 그리고 예술

탄탄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탄광과 함께 쇠락하는 마을

2024년 6월 28일, 강원도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았다. '장성광업소 종업식'이라는 플래카드 앞에 모여 앉은 마지막 광부들은 '광업소 직원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인사에 눈물을 훔쳤다. 태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탄이 발견된 지역이다. 해발고도 700m,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던 지역은 석탄의 흔적을 따라 길을 내고, 마을을 꾸렸다. 석탄 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1960년대부터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운탄고도를 따라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갔다. 1981년에는 인구 10만 명을 넘기며 시로 승격했다. '태백에서는 개들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서울까지 떠돌던 시절이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함께 전국 347개 탄광 중 307곳이 문을 닫고, 본격적인 사양길로 접어들 때도 장성은 한동안 건재했다. 그러나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던 산업이 쇠락하면 지역은 금세 활기를 잃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탄광인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지금 태백의 인구는 3만 8,000여 명. 2023년 기준, 태백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꼽힌다. 태백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구직자 수와 비교할 때 기업의 구인이나 취업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 청년층이 꾸준히 태백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디렉터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 다시 태백으로 돌아왔던 2017년에도 지역의 청년 이탈은 꾸준했다.

"어린 시절에는 태백에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만화 보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마땅히 그릴 도구도 갈 곳도 없었죠. 광부였던 아버지는 늘 화가 나 계셨고요. 그때의 기억이 어린 시절 상처로 남아서 지역을 떠나고 싶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광부의 아이들로



자란다는 건, 고된 노동이 주는 울분과 고통을 떠안는 일이기도 해요. 서울에서는 디자이너로 일하다 게임회사에 취업했어요. 저는 게임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산업 안에 있어보니 결국 어떤 식이든 아이들의 돈을 착취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인디 게임에도 해 보고, 어쩌다 보니 문화예술 기획사에서 아이들과 직접 게임도 만들어봤어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난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태백에서 아무 문화적 돌파구도 갖지 못한 아이들이 떠올랐고, 여전히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저 자신을 생각했죠."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대표

자신을 상처 입힌 마을에 스스로 돌아오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진 않았다. 다만 김신애 대표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막연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이 회복과 이해의 힘을 갖고 있다면, 그 힘이 가장 절실한 지역은 태백이었다.

"광산은 죽음과 가장 가까운 노동 현장입니다. 죽어가는 동료를 지켜보는 노동자,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던 개인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할지 몰라 매일 집으로 돌아와 폭력으로 표현했고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먹고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진폐증, 산업재해가 주는 트라우마가 내부로 응축되어 태백을 불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태백에 돌아와 장성마을을 관찰하며 사실 우리는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술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대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립의 시도들

2017년 김신애 대표는 (주)널티를 설립해 장성을 거점으로 지역에서 사람들과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주요 키워드는 '기록' 그리고 '청소년'이다. 마치 과거와 미래의 동의어 같은 단어들이다. 광부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땅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반평생 광부로 일하며 예술 활동을 이어온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한편으론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각 부분에 기반한 예술 교육을 진행했다. 대도시와 소도시가 가진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불평등은 김신애 대표가 꾸준히 극복하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다.

(주)널티 설립 이듬해, 폐광지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코워킹 스페이스인 무브노드(MOVE NODE)를 열었다. 202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마을 '광광 스토리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빛 광(光)과 광산 광(鑛)을 조합해 이름 붙인 청년마을에서는 광산 지역이라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식음료 개발을 고민해보기도 하고, 놀며 일하는 공간인 무브노드를 기반으로 스테이 앤 워크(Stay and work)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역 축제를 열어 외부인을 초대하고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광광 스토리지'가 광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시도하는 경험이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멸위기 대응 지역활성화 사업과 만난 2024년부터는 사업의 내실을 응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장성 안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요. 청소년, 마을 어르신은 물론이고 워크숍을 통해 마을을 오가는 외지 사람들, 외지에서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도 있죠. 지금은 그들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길을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은 결국 살만한 땅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요. 사람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일자리는 당연하겠죠. 저희가 꾸준히 사업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이유도 결국 일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으로는 주체성과 전문성이 지역에서 터를 잡게 한다고 믿어요. 지역에 산다는 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경험이니까요.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대표

지도에도 없는 마을, 하장성 1길 4의 모험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태백 장성동에 김신애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10명 내외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교한 태백중학교를 바탕으로 '제1회 로컬디자인페어—자유영토'를 열고, 2023년부터는 '비엔날레 날땅'이라는 이름으로 장성 곳곳에 순수예술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를 열기도 했다. '날땅'은 개간하지 않은 맨땅이라는 뜻을 담은 단어다. 탄탄마을이 운영하는 '기억을 모으는 미술관—아트티'는 '예술가가 그의 언어로 태백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전시에 참가한 예술가들은 개간되지 않은 땅이기에 장성에 더욱 매료된다고 말한다.

"검은 땅에 오래도록 켜켜이 쌓인 묵직한 이야기와 폐허를 오늘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아름다움."

박선민 작가

"피서지에서 철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탄광에서 자본주의의 명암과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술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이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희망을 찾는 사람이니까요. 작가는 더럽고 지저분한 탄천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황재형 화백

"나는 평생 굴 안에서 노동했습니다. 어둠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빛에 대한 인식이 확장됐고 이젠 태양을 찍는 일이 가장 좋아요. 미지에 대한 공포를 딛고 서 있어야만 하는 이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란, 어둠을 벗어난 하루 끝의 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없이, 꺼져가는 나의 동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유입니다."

김철호 작가

김신애 대표 역시 삶의 의미를 찾아 분투하는 예술가에게 태백은 더없이 좋은 영감을 주는 곳이라고 말한다. 때로 예술가들의 작업은 지역 주민과 만나 위로의 경험을 낳기도 했다. 최초의 광부아파트인 화광아파트가 철거되기 전 꽃상여를 꾸며 장성동 주민들과 함께 치른 장례식이 그렇다.

"작가가 지역 주민을 한 사람씩 맡아 그 사람을 표현하는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주민이 곧 작품이 되는 셈이죠. 그냥 편한 차림으로 미술관을 드나들던 분들도 전시날이 되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미술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스스로의 삶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 거죠. 일종의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우리 지역이, 내 삶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대표

2024년 10월부터 약 2달간 열린 '블랙사운즈' 기획공연은 장성을 넘어 태백 전체로 품을 넓힌다. 포크와 블루스·국악·현대무용 등 태백과 관계된 다양한 예술가를 초청해 '거실에서 듣는 음악(sofar sounds)'을 콘셉트로 열린 공연은 예약제로 운영되었으며, 지역의 특색을 가진 공간에서 촬영한 〈바람과 나〉 뮤직비디오를 상영했다. 이는 지역에 문화예술의 온기를 채우는 동시에, 태백과 관계된 예술가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모으는 시도이기도 했다. 아트티에서 열린 〈흔한태백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을 떠난 노윤하 작가가 다시 태백에 귀향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다시 태백을 떠나며 느낀 소회를 녹여낸 전시다. 작가가 말하는 '흔한태백사람'은 태백을 '떠나야만 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나처럼 고향 태백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아마도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태백 사람들이 현재 태백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당장 내 동창들 중에도 태백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어쩌면 태백을 떠나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더 흔한 태백 사람일지도 모른다."

노윤하 작가

용달차로 전국을 돌아다니다 '손가락을 다 접기도 전에' 태백으로 돌아왔다는 윤경희 작가의 사진전까지. 지역에서 멀어진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태백에서 살며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하려는 일관된 시도이기도 하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흔한 사람'은 '떠난 사람'이라는 노윤하 작가의 말은 지금, 지역 활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진다. 탄탄마을관리를 비롯해 지역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공간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다

탄탄마을은 광산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모으는 '라키비움'을 꿈꾸고 있다. 라키비움이란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을 통합한 복합공간을 말한다. 김신애 대표가 지향하는 라키비움은 '장성' 그 자체다. 광부들의 삶이 녹아 있는 마을 전체를 살아있는 라키비움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미다. 태백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기록관과 지역과 관련한 기록이 편집되고 공유되는 도서관을 마을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사실 공간 확보는 탄탄마을이 그동안 지역 곳곳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부딪혀온 난관이기도 하다. 폐교나 마을 창고 등 버려진 빈 공간의 소관처가 불분명하다 보니 때로는 몇 마디 말로 쉽게 허가를 얻기도 하고, 부탁조차 못해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김신애 대표의 고군분투를 격려하는 마을 주민의 협조에 기대왔지만, 지역을 변화시키려는 민간의 노력에는 관의 관심과 힘도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지역소멸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이 '광산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살 수 있나?'하는 불안을 느꼈어요. 저도 그랬고요. 불안을 넘어 이 마을이 지속가능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역 활성화보다는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네요. 탄탄마을에서 주민들과 재미있게 살 궁리를 하면서 태백을 필연적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살만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태백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싶고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대표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로도 몫을 다하는 경우가 있다. 묵묵히 날땅에 색을 입히다 보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 작업을 계속하고, 또 누군가는 그에 맞춰 이곳을 찾을 테니까. 탄탄마을이 일단은 치열하고 재미나게 끊임없이, 살아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란다.

결국 표현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INTERVIEW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애 대표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들려주세요.

우리는 강원도 태백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연한 팀입니다. 광산을 모티브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마을에 스며드는 즐거운 시각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죠. 저를 비롯해 코디네이터와 회계, 아카이빙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예술가와 외지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가, 자문단, 주민자치회까지 폭넓은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온 지역에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했을 때 보람만큼이나 어려움도 컸겠죠.

가끔 지역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과연 이 프로젝트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단순히 제가 좋아서 하는 건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밀어붙이는 건지. 대부분의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그렇듯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담보하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행사를 열다 보니 참가자나 관객을 모집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땐 더욱 외로운 느낌이 들죠. 7년째 그 상실감과 싸워왔는데 어느 순간 천천히, 저희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해진 청소년들을 만날 때 용기를 얻어요.

그동안 청소년 대상 시각예술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온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했나요?

문화예술 언어는 추상적이잖아요. 이 언어를 습득하려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저는 이 과정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는 특히 그렇죠. 한번은 위기 청소년 친구들과 시각예술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살아갈 동기가 생겼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알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표현하고 발산하는 사회가 건강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고, 다독이며, 회복한다면 지역도 점차 더 많은 사람이 자꾸 찾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앞으로의 꿈을 말해주세요.

일단은 지속가능한 생존입니다.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커다란 보람보다는 열패감과 절박함, 걱정이 더 많은 시간이었어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면 진작 지쳐서 나가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고갈되었지만 멈추지는 않으려고요.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을 다방면으로 찾아 나서려 합니다.

INTERVIEW

태백에서 예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윤지영 님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저는 태백에서 나고 자랐어요. 2020년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협의체 활동을 시작했죠. 막상 협의체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관에서는 이미 그려둔 그림이 있고, 주민 의견은 그냥 형식상 듣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해낼만한 역량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알게 됐어요. 김신애 대표를 만나고 나서야 체육관이나 수영장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침 뉴딜 사업으로 인해 협동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만나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를 비롯해 태백의 많은 주민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미술관도 없고, 아이들은 물론 동네 어른들도 평생 문화예술을 접해볼 기회가 없죠. 김신애 대표가 마을에 와서 사람들 이야기로 책을 만들고, 담벼락에 전시를 할 때 사실 '왜 쓸데없이 저런 일을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를 담은 전시를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학원에도 한 번 가볼 일 없는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가끔 다른 지역 예술가를 초청해 공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작가를 보고 싶어 하는 다른 지역 사람도 태백에 와요.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땐 마을에도 사람들 얼굴에도 활기가 돌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소멸 막는다고 여기에 이것저것 짓고 세우면 그 위기가 없어질까요?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후 사람들은 점점 더 급속도로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같이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동참해 보면서, 소멸하는 지역을 지키려면 그나마 이 일 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공연이 열리고, 전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태백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길 바라시나요.

태백에 와본 적이 있나요? 여긴 산이 높아요. 산이 높은 만큼 그림자도 길죠. 그림자가 많으면 어둠이 오래 가요. 태백은 밤이 긴 땅입니다. 때로는 그늘을 이불 삼아 치유받고 사색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태백이 그런 일을 모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레지던시 삼아 많은 작가 분들이 찾아와 예술 활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마음이 맞으면 여기 아이들도 만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어떤 작업도 꾸려보고 공연도 하고요. 여기서 뭔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설렌 표정을 자주 보는데, 거기서 얻는 힘이 있어요.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고 지역은 다시 쇠락의 기로에 놓였어요. 부디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지역에 활기를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모두의 예술 놀이터 클라우드 컬처스




낭만주의
페스티벌
2024.11.01 - 03

시골 폐교,
소백산예술촌으로
거듭나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도 소백산 자락을 따라 한 시간 여를 달린 끝에 아르떼포레를 만난다. 아르떼포레의 본래 이름은 소백산예술촌. 천년고찰 부석사와 사과나무 밭을 이웃한 영주시 부석면 임곡 2리. 1923년 개교 이래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석북부초등학교가 폐교한 자리에 2001년 문을 열었다. 소백산예술촌은 클라우드 컬처스 조국원 대표의 부친인 故 조재현 선생이 가꿔낸 공간이다. 1983년 소백극회를 창립한 故 조재현 선생은 창립 공연 〈양반전〉을 시작으로 20편이 넘는 작품을 연출하며 영주 연극계에 뿌리를 내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그래도 우리는 볍씨를 뿌린다〉, 〈방황하는 별들〉 등 어린 시절부터 연극을 접했던 조국원 대표에게도 흐릿한 기억으로 남은 작품들이 영주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이웃 주민에게는 아직 또렷하다. 연출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故 조재현 선생이 폐교한 초등학교를 임대한 이유도 '부석 공연 예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멀리 부석사 지붕이 내다보이는 지리적 조건은 사시사철 관광객이 지나는 길이라 극장으로 삼기에 더없이 적합했다. 깨진 유리창을 손수 고치고 운동장 잡초를 뽑아 문을 연 예술촌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캠프이자 손진책, 이두식 등 국내 저명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금도 교실 곳곳에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학로를 이끈 작품들의 포스터와 대본집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다.

소백산예술촌은 좀처럼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연결하는 매개이기도 했다. '사과꽃 따기 체험', '여름 가족캠프', '달빛별빛 공연이야기' 등 특산물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이 이곳에서 열렸다. 지역 행사인 '3도 접경면 어울림 한마당', '부석사 화엄축제' 등을 주관하기도 했다. 3도 접경면 어울림 한마당은 단양과 영주, 영월 주민이 함께 모이는 전통문화 축제로, 소백산예술촌을 경상북도 전역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덕수의 사물놀이나 이윤택 연출가의 밀양 연극 등 폐교를 창작촌으로 활용하던 당시 문화예술계 흐름도 예술가들이 이 지역을 작업 거점으로 선택할 근거가 됐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공연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조국원 대표가 소백산예술촌의 2대 촌장으로 취임한 것 역시 그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릴 때부터 소리를 듣고, 극을 보면서 자랐어요.
예술촌에 오면 늘 배우와 연출가, 각종 스태프 분들이
가득했죠. 당시 소백산예술촌은 예술가들의 터전인 동시에
인근 주민에게도 스스럼없이 드나드는 사랑방 같은
존재여서 늘 활기찼던 기억이 나요. 연극을 전공하기 위해
도시로 나가면서도 언젠가는 영주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예상보다 한 2년 정도 빠르게 내려오게 됐죠.
오랜 기간 지역 문화예술의 거목 같은 존재로 계신 모습을
보며, 뒤를 이어 고향의 문화 예술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려면
꼭 '서울로 가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싶기도 했고요.
예술가가 모여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거기가 꼭 도시여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클라우드 컬처스 조국원 대표

조국원 대표는 클라우드 컬처스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나섰다. 소백산예술촌은 물론 영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 곳곳에 공연을 기획하고 선보였다. 그와 관계된 청년 예술가는 물론, 선대 소백산예술촌장을 기억하는 주민과 지역 예술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아티스트를 초대해 선보이는 전통 예술 클래스나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모임, 낭독극이나 실험극, 1인 창작극 등 공연의 폭도 넓어졌다.

주민과
예술가가 교차하는
창작 공간

지역의 문화 발전과 마을 주민의 활발한 예술 경험이라는 지향성은 지금도 소백산예술촌을 지탱하는 정신이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소백산예술촌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공동 매입하여 예술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예술촌 마당과 교실은 지금도 인근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6년 모둠북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마을 난타 공연팀 '락&무'와 마을합창단의 연습 장소로도 쓰인다. 소백산예술촌 곳곳에 주민이 함께한 예술적 경험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나는 여기 부석북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학교가 없어진다고 했을 적에는 마음이 못내 서운했는데 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살아남아 예술촌으로 재탄생하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릴 적 다니던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도 하고 놀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 예술촌은 마을을 활기차게 해주는 행복한 시설입니다."

지역주민 금경애 님

"이곳 임곡리는 영주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어요. 뭘 배우거나 공연을 보러 저녁에 외출하는 일도 없죠. 여기 소백산예술촌이 지역 주민한테는 유일한 재미거리인 셈이에요. 요즘은 젊은 양반들이 자꾸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던데, 동네에 활기가 도니 더할나위 없이 좋지요."

소백마을예술학교 합창단원



주말 오전마다 마을 주민에게 연습실을 내어주는 소백산예술촌은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자료와 보관 장소를 비롯, 비품실과 연습실, 의상실, 음악실 등을 갖추며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소백산예술촌 안에 창고를 개조한 극장과 레지던시를 추가해 보다 긴 호흡으로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지 역할도 꿈꾸고 있다.

2024년 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클라우드 컬처스가 공동 주최한 '낭만주의 페스티벌'은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소백산예술촌의 쓸모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무용·시각예술·연극·영상·음악 등 예술 창작에 관심을 둔 전국 청년 예술인 5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입소해 팀별 창작 공간을 제공받고 각 예술 분야의 특성을 살려 공동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창작물은 이튿날 공연과 전시 형태로 소백산 예술촌을 채웠다. 또 2022년 소백산예술촌에서 열린 '와인과 함께하는 음악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강순필 소믈리에를 초청해 와인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는 이번 워크숍에서 예술가들과 만나 즉흥으로 짧은 시를 창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영주에서 독립 서점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주는 청년 인구가 적은 데다 그마저도 점차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판이나 문학 분야는 공연 예술에 비해 창작이나 운영 지원을 받을 기회도 전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시에 영주시에 독립 서점이 세 곳이나 운영된다는 사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원 대표와는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는데요. 낭만주의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예술가들과 만나 생존을 모색하고, 협업을 도모하는 경험이 무척 뜻깊었어요.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지치는 순간이 많은데,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준수 작가

클라우드 컬처스는 앞으로도 지역과 예술이 만나는 장을 만들고, 청년 예술인들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소백산 예술촌을 넘어 공연 기획사로서 비정기 및 상설 공연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경험이 적은 산간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이나 아동극 개발에 관심이 많다.

문화예술이 전하는 감각의 힘

클라우드 컬처스의 인형극 〈안녕 이끼끼〉에는 작은 돌멩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조국원 연출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어느 순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이 왜 깨어났는지 깨닫고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공연 예술을 통해 생동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그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깨어나는 경험'을 선물하고자 한다. 예술인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 영주에서는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주에 사는 주민들이 시골의 고요 속에서 늘 '오늘 뭐 하지?' 고민하게 된다면, 지역 이탈은 필연적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대감, 함께 나눈 추억과 경험이 지역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ArtePórr
COMPLEX CULTURAL SPACE



"최근의 지역 이주는 대부분 일자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아무 미련 없이 지역을 떠나버리지 않을까요? 고속도로와 철도는 사람을 언제든 쉽게 떠나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컬처스 조국원 대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영주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예술 자원이 많다. 영주에서 활동하는 젊은 문화예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문화예술 자원의 소멸로 이어진다. 영주 내에 타 지역의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국원 대표는 '영주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 영주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한 마음이다. 그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영주의 문화예술'은 지역을 어떻게 지탱할까? 여전히 영주에서 살아가며 합창을 하고, 소백산예술촌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그 답이 있다. 영주에 나고 자라며 본 무대와 춤, 노래를 기억하며 다음 세대의 예술을 지키는 클라우드 컬처스 자체가 가장 좋은 본보기일지도 모른다.

영주 소백 예술촌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컬처스 조국원 대표



클라우드 컬처스에 대해 들려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인 팀입니다. 소백산예술촌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주를 비롯해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주의 문화예술을 지켜가는 일은 저희의 오랜 지향점인데요.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던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과 만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저희는 미래세대의 예술 경험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쌓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영주를 비롯해 경북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와서 주저하던 아이들도 돌아갈 때는 '이런 거 언제 또 하냐'고 물어보곤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믿고 참여하겠다고 응원하시고는, 어른들을 위한 활동은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시죠. 접할 기회가 적을 뿐이지 일단 만나면 화학작용은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그 즐거움을 알기에 계속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술인 워크숍이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 또한 한 사람의 청년 예술인으로서 연대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소백산예술촌의 탄생 또한 예술가가 한데 모여 어울리며 성장하는 데 뜻이 있었고요. 예술인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궁리를 하는 데서 새로운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자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 낭만주의 페스티벌 외에도 대학생 예술인 네트워크 모임이나 공연팀 워크숍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예술인이 영주에 모이고 새로운 관계 인구 유치는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클라우드 컬처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영주 소백산예술촌의 존속입니다. 소백산예술촌은 2002년 문을 열었고, 2010년에는 교육청의 매각 결정으로 마을이 운영 주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맡았고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된 셈입니다. 예술가 레지던시를 새롭게 단장하고, 창고를 개조한 극장도 거의 준공이 끝나가는 시점에 매각 문제로 존속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3년의 역사를 가진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 속에서 예술촌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함께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영주 소백산예술촌은 예술가와 시민 모두의 추억과 헌신이 담긴 공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존립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나고 어울리며 생동하는 예술

INTERVIEW

강성주 협력예술가



클라우드 컬처스와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조국원 대표의 한 학년 선배입니다. 연기를 전공하면서 애크러배틱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 시절 조국원 대표가 북을 치면 제가 춤을 추고 텀블링도 하고, 그런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조국원 대표의 소개로 영주 소백산예술촌을 알게 되었고요. 현재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며 뮤지컬과 서커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고를 떠나 영주라는 낯선 공간에서 공연을 해본 소감이 궁금해요.

저는 몸을 많이 활용하는 배우고, 극에서도 관객과 직접 터치하거나 소통할 때가 많아요. 관객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공연 흐름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서커스처럼 고난도 작품을 할 때는 관객의 함성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확실히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주에서는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만큼 더 큰 호응과 반응을 보내오기도 하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자꾸 영주에 다시 찾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문화 소외지역에서 관객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낭만주의 페스티벌은 어떤 경험으로 남았나요?

소백산예술촌에 올 때마다 느낀 점인데, 늘 낯선 분야의 예술가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시각이나 문학 분야 예술가와 이야기하는 경험이 좋아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배우나 서커스팀을 만나기도 하고요. 결국 예술도 만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상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올해는 저마다 다른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예술가 동료들의 경험담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청년 예술가에게 무대와 동료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여전히 많은 청년 예술가가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예술가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순히 지원 부족의 문제를 넘어, 활동을 선보일 무대가 한정적이고 고민을 터놓을 창구도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백산예술촌이라는 커뮤니티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그동안 뮤지컬이나 애크러배틱 퍼포머로 다양하게 활동해왔어요. 한동안은 부상으로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후원으로 서커스극 〈마찰〉을 새롭게 선보이며 다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영주를 비롯해 관객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새로운 몸짓을 선보이며 열심히 무대에 서고 싶어요.

조만간, 이곳 우리의 강진 으로부터

강진군 문화 관광재단





관광 콘텐츠에 문화예술을 연결하다

강진은 예로부터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자원이 많은 고장이다.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다산박물관과 다산초당,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 영랑 김윤식의 영랑생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민화뮤지엄과 고려청자박물관까지. 모두 세월이 일궈낸 유산이다. 강진군민 대부분이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정약용'을 꼽는다. 시골 마을에 유배를 내려와 지역에 실학의 기틀을 잡고, 글과 삶의 태도를 가르친 그의 업적이 지금도 지역 곳곳에 '다산'이라는 언어로 스며들어있다.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조만간 프로젝트(조선을 만난 시간)' 역시 정약용이라는 지역 문화자원에서 출발했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사의재 저잣거리에서 펼쳐지는 본격 코믹 마당극으로 강진에서 보낸 정약용의 시간들을 재구성해 만들었다. 마당극의 주연 배우는 강진군민이며, 관객은 대부분 강진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들이다. 강진군은 '지역소멸 대응'의 해답을 관광에서 찾았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지난 10년 간 18.4%의 인구가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인구 감소율은 41%에 달한다.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됐다. 강진군과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각종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강진군 방문자가 연평균 1.3%의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체가 따로 없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문화예술재단이 아닌 '문화관광재단'이기에, 주력 사업은 대부분 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저 역시 강진에서 남해로 그리고 다시 강진으로 오면서 관광 사업을 담당해왔고요. 수요조사 결과 강진군민 대부분이 문화복지보다는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한 방문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갈증이 크세요.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가 주 사업이 되었고,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는 서브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문화복지 사업과 관광 상품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관광 콘텐츠에 예술적인 요소를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임채성 팀장

사의재(四宜齋)는 다산 정약용이 1801년 강진에 유배 와서 처음 묵은 주막이다. 귀양을 와 낙담에 빠져 있던 정약용은 주막집 주인의 배려로 이곳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교육과 학문연구에 헌신하기로 다짐한다. 이후 그는 강진에 18년간 머물며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를 비롯해 500여 권을 저술했으며, 수많은 후학을 기르고 실학에 근거한 농사법과 어업을 연구했다. '네 가지를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사의재(四宜齋)에는 '생각을 맑게 하되 더욱 맑게, 용모를 단정히 하되 더욱 단정히, 말(언어)을 적게 하되 더욱 적게, 행동을 무겁게 하되 더욱 무겁게'하라는 뜻이 담겼다.

꿈이 된 무대, 예술이 된 몸짓

사의재는 2018년 12월 꾸며진 저잣거리와 한옥체험관, 한과와 도장 공방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의 명물은 매주 토요일마다 사의재 곳곳에서 열리는 마당극과 콩트 형식의 재현 코너들이다. 마당극은 크게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병영상인의 이야기를 담은 〈장사의 신〉과 강진으로 유배 온 정약용이 민초의 고달픈 삶을 깨닫고 주모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린 〈다산의 꿈〉까지 두 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2020년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10개의 재현 코너에서는 다산과 주모, 사또와 이방 등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캐릭터를 배치하여 다산의 유배살이와 관직자의 부정부패 등 다양한 시대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한다. 강진에서 직접 무예를 연마하는 시민 배우들의 공연이나 활쏘기 체험, 풍류 밴드의 버스킹 공연도 볼거리를 더한다. 관광객들은 사의재를 여행하며 일종의 테마파크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한다. 시민 배우들은 자유롭게 마당극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갑자기 날아드는 참견에 재담으로 대꾸하기도 하며 극에 생동감을 더한다. 고등학생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열 일곱 명의 시민 배우가 지난 6년 간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물이다. 2023년 5월 기준, 사의재 저잣거리는 프로젝트 미운영 시기 대비 관광객이 162% 이상 늘었다. 조만간 프로젝트 시행 1년 만에 한국관광공사 선정 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며, 저잣거리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관광객은 소멸하는 지역에 어떤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재)강진관광문화재단은 '조만간 프로젝트'를 강진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한다. '조만간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소득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저는 이 사업이 강진을 떠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포나 광주로 이탈하지 않고도 강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고요. 지역의 공연 예술인을 비롯해 생업과 병행하거나, 무직이었다가 이 극을 통해 새로운 길을 꿈꾸게 된 시민 배우들에게도 그렇죠. 사실 이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이 전부 관광객은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도 많이 보러 오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레퍼토리 외에도 계속 무용이나 전통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프로젝트의 질과 규모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사랑받고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키우고 싶습니다.
강진하면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자원 만큼이나 공연과
음악으로 풍성한 도시라는 인상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실제로 해외의 경우에는 공연이 지역을 찾게 되는 주요한
관광 자원인 사례도 존재하고요."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임채성 팀장

조만간 프로젝트는 강진군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중에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배우들은 주말마다 저마다 맡은 역할로 변신한다. 출연료를 아르바이트비 삼아 도전한 고등학생부터 가수의 꿈을 품은 76세 배우, 결혼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극단에 함께한다. 배우 오디션은 난생처음이라 어떤 재능을 선보여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지 고심하던 초기의 고민은 '의욕' 하나로 해소됐다. 배우들은 공개 오디션 선발 후 조만간 아카데미에서 48시간의 집중 교육과 분기별 정기 교육 과정을 거쳤으며, 공연을 시작하기 전까지 연극, 마당극, 춤 외에도 강진문화해설과 관광지 안내교육, 친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의재에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오디션에
도전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오디션을 통과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신기해요. 그전에는 공연 예술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배우들과 같이
연습하고 무대에도 오르면서 진심으로 이 과정이 재미있고
자랑스러워졌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프로젝트에 배우로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를 보러
많이 와주세요!"

배우 강수정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강진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은 군에서 시민 배우를 모집한다는데, 마음이 막 끌리더라고요. 가서 뭘 할지도 모르면서. 그때 내가 오디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큰 사는 재미 하나 놓쳤을 거야. 첫 마당극 작품인 〈땡큐 주모〉에서 주모 역할도 맡아보고, 〈다산의 꿈〉에서는 저승사자 역할도 했습니다.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주 오는 관객들은 대사도 치고 호응하고 박수도 쳐주는데 그때마다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면 제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그럼 우리 강진도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 스태프들과 같이 오래오래 공연을 계속 선보이는 게 제 꿈입니다. 또 더 많은 강진군민이 이 극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배우 홍보배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역의 대안

'조만간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축은 지역 예술가들이다. 한국창작무용을 기반으로 극의 안무를 담당했던 김지은 총감독을 필두로 조연출, 음향, 분장 등 스태프들은 강진을 비롯 전남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강진관광문화재단은 현재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강진청년협동조합, 전남음악창작소,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협회, 한국문화예총연합회, 강진예인회 등 주변 문화예술인과 협력하며 판을 키워가고자 한다. 11월 1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진행한 '조만간 콘서트'는 기존의 레퍼토리를 야외가 아닌 대극장으로 옮기며, '공연예술'로서 확장을 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80분간 이루어진 콘서트는 짧은 호흡으로 구성된 9개의 코너를 배치해 촘촘하면서도 지루할 틈이 없도록 연출했다. 특히 시민 배우의 마당극과 전문 예술가의 공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전체 프로그램의 밀도와 독창성을 더했다.

(재)강진관광문화재단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조만간 프로젝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본 만큼 더 많은 배우, 스태프와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화예술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와 지역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프로젝트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지역소멸 대응의 또 다른 축인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만난 예술인 청년들이 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되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 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해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이다. 강진군은 마을 이장들이 직접 조사해 얻은 빈집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공사 후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81동의 빈집 중 리모델링과 공사를 마친 장기 임대 43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았으며, 평균 17 대 1의 높은 경쟁률 끝에 입주자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 대한 동경 때문에 지역을 벗어난다고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도시에서 역으로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인구도 많고요. 빈집 임대사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낮은 임대료로 지역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예술가가 많았습니다. 이밖에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에 청년 예술가들이 유입되면서, 일종의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임채성 팀장

강진에 메이크업 학원이 없어 해남을 오가던 고등학생은 조만간 프로젝트를 통해 사는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괜찮은 일.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지역 소멸 대응은 여기서 시작된다. 임채성 팀장은 '조만간 프로젝트' 초반, 재단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점차 스스로 규모를 키우며 성장하는 극단의 미래가 그려진다고 말했다. 6년의 노하우로 다른 배우를 이끌어주는 시민 배우의 관록과 강진에서 적극적으로 생존과 협업을 모색하기 시작한 지역 예술인의 덕분이다. 조만간 프로젝트는 겨울을 맞아 상설 공연을 멈추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틈틈이 지역 초대 공연에도 나서고 있다. 강진군을 지탱하는 힘이 조만간 프로젝트를 넘어 다양한 공연 예술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四宜齋

조만간을 넘어 확장하는 문화예술 연결망을 꿈꿉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
임채성 팀장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관광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관광 코스 개발이나 지역 축제 같은 마케팅에서 음악창작소와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운영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과 관광 사업'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2025년부터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콘서트를 무사히 마친 소회가 궁금합니다.

조만간 콘서트는 그동안 조만간 프로젝트가 지나온 길을 집대성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사의재를 배경으로 야외 공간에서 펼쳐온 무대를 그러모아 극장 안으로 들여온 첫 시도입니다. 앞으로 조만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실험이자 도전이었어요. 평소에는 눈 감고도 해낸 극인데, 배우들이 막상 무대에서 리허설을 하니 생각보다 긴장하시더라고요. 리허설 전에 함께 모여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떨린다고 걱정하시면서도 무사히 무대를 빛낸 시민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만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시민 배우의 역할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을 더욱 신나는 춤과 노래로 채워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도농 청년 사업가와 작가들을 연결하는 '강진 문화 플러팅' 행사를 개최하셨죠.

서울에서 부스를 열고 고려청자, 한국민화뮤지엄의 민화와 굿즈, 야생녹차와 같은 지역 특산물과 강진의 청년협동조합, 복합 문화 공간들을 소개했어요. 강진과 서울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모여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노하우도 나눴고요. 많은 분이 강진에 정착한 청년사업가와 예술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찾아가 강진을 알리면서 끊임없이 접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진을 알고, 호기심을 갖는 일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콘서트'를 마친 지금, 7년 차를 맞이하는 2025년에는 어떤 변화를 그리고 있나요?

처음 조만간 프로젝트를 개발할 당시부터 사의재에서만 마무르지 않고 여러 권역에 그에 걸맞은 스토리를 개발해 상설 공연을 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사의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다산의 꿈〉이라면, 〈장사의 신〉은 강진 병영상인의 역사가 탄생한 전남병영성에 기반합니다. 2025년에는 김영랑 시인의 영랑생가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산초당, 백련사, 고려청자박물관,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등 역사와 문화를 살린 명소를 연결하고 군민과 지역예술가가 힘을 합쳐 '예술'이라는 색을 입히고자 합니다.

김지은 조만간 프로젝트 총감독

김지은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된다



조만간 프로젝트와의 인연을 소개해주세요.

2018년부터 조만간 프로젝트의 안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총감독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고요. 처음 조만간 배우들을 만났을 때는 저마다 역량이 달라서 정말 하나하나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안무만 담당했는데도 무수히 많은 반복 연습의 시간이 있었죠. 평일에는 본업에 매진하다 주말에 공연 연습을 병행한다는 게 전문 예술가에게도 버거운데 잘 따라와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새삼 모든 배우와 스태프가 한 발 더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전문 예술가로서 시민 예술가와 호흡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 예술가가 아마추어임을 잊지 않되 동시에 전문가로서 대해야 합니다. 아마추어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고 다시 알려드리고, 다만 그들 또한 동등한 예술가로서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따라와준 배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역시 조력자가 아닌 같이 무대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만간 콘서트는 기존의 야외 프로젝트를 극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기존에 진행하던 마당극 레퍼토리에 무용수들이 준비한 춤을 엮어서 연출했어요. 야외 공간에서의 극은 관객의 시선을 오래 붙잡아두기 힘들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요. 그런데 대극장 안으로 들어오면 또 이야기가 너무 빨리 끝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작이나 동선을 넓게 쓰고 무대 연출이나 소품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대극장의 장점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대신 마당극이 가진 즉흥성은 그대로 살렸고요. 무엇보다 사의재에서는 편안하게 공연하던 배우분들이 막상 큰 무대에 서니 많이 긴장하셔서, 평소처럼 하시라고 격려하고 북돋웠어요. 막상 2부 공연까지 끝나고 나니 저를 포함해 다들 뭔가 아쉽고 허무한 기분이 들어요. 조만간 프로젝트는 계속되지만 콘서트는 이게 끝이니까요. 조금 더 성장한 만큼, 경험치를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조만간 프로젝트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들려주세요.

모든 배우 분들이 강도 높은 훈련에도 불구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무대에 오르는 경험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세요. 음악감독이나 안무보조, 분장까지 공연에 관계된 모든 스태프도 마찬가지죠. 다들 잘하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무대가 끝나고 나면 더 없이 행복해집니다. 아마 모든 공연예술가가 공유하는 감정이겠죠. 앞으로도 조만간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4년은 조만간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가 분명히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PART 2

문화예술 탈중심을 향하다

지역의 '공기'를 바꾸는 문화예술의 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현재와 과제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문화예술 세계 도시와 충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예술, 극단 '큰들'과 산청마당극마을

지역의 '공기'를 바꾸는 문화예술의 힘

고영직
문학평론가

지역소멸 위기 속 문화예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로 지역의 생활 여건을 즉각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화예술은 고유한 상상력의 힘으로 지역의 공기에 활력을 더하며 지역주민이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가능성에 주목하여 지역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 시선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지역소멸은 서사의 소멸이다

지역소멸은 서사의 소멸이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서사는 나를 나이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기 서사에 눈을 뜬 사람을 이길 재간은 어디에도 없다. 노년·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자기 서사에 눈을 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그런 분들은 절대 '남들처럼'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이야기'가 서사를 만든다. 기존의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상투적이다. 너도 나도 지역의 위기를 말하고 서사의 위기를 언급하지만 집·땅·차·돈을 맹목적으로 욕망하므로 하필왈리(何必曰利)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하필왈리는 『맹자』의 첫 장에 등장하는 말로 "하필이면 왜 이익이 되는 것만을 말하느냐"는 뜻이다. 맹자가 양혜왕을 첫 대면했을 때 왕이 대뜸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왕께서는 하필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힐난한 데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하필왈리의 정서는 아직도 이 땅에 만연하다. 선거철이면 지역 개발과 발전 논리가 막강하게 작동한다. 오래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가 "길이 뚫린다! 물길이 열린다! 땅값이 오른다!"라는 슬로건을 대놓고 표방하여 당선되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별 대표 '문화 공약'조차 없는 상태에서 치러졌다. '메가시티' 이슈가 온 국토를 뒤덮었지만[1] 인구 소멸과 빈집 증가로 인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사회적인 의제도 쟁점화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서사가 없는 초라한 '경제 동물' 신세가 된 것이 아닐까. 경제학자 홍기빈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에는 결국 '허무함, 지루함, 비루함'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2]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을 '서울의 시선'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일류 선진국이 되었다고 우쭐해할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 제대로 된 출판사 하나, 로컬 잡지 하나, 서점 하나 없는 현실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전국적으로 서점이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가 9곳이나 되고, 서점 소멸 예정 지역이 25곳으로 추산된다는 『2022 한국서점편람』 통계 결과를 보며 몹시 기함했다. 이런 소식은 지금도 계속된다. 최근 대전 대표 서점인 계룡문고가 문을 닫았다. 2019년 3월, 그곳에서 〈동네 서점이 로컬의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로컬의 미래는 이제 어찌 될까. 또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극단(劇團)이 하나도 없는 지역을 추산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1 국민의 힘은 2023년 11월 16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하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 김포시를 2025년에 서울특별시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구리시와 하남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이 순차적으로 발의되었고, 고양시·광명시·부천시의 서울 편입 또한 논의되었다.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지만 2024년 8월 9일에 재발의되었다.

2 '50+를 지탱할 이야기를 찾아서', 〈arte365〉(2021.04.05)

'여건'보다 '여지'를 만들자

로컬(local)의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에서도 지역소멸, 인구 소멸 같은 위협 요인을 극복하려는 힘이 '지역문화'에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서 정책을 수립했다는 '믿음'을 주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3년 3월 23일 당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문화는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입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로컬100' 같은 정책사업을 열거했다. 하지만 성과 중심의 관광형 사업으로 보이는 이러한 정책사업이 지역문화 생태계를 진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가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2019)에서 강조한 '생기(生氣)'라는 말을 상기하자. 그는 인구 소멸과 지역소멸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듯이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생기(生氣)를 자양분 삼아 서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물건[死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일극(一極) 체제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문화와 예술은 지역에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여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 오해 마시라. 예술의 역할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원도 춘천을 심층 탐사한 훌륭한 책 『로컬 씨, 어디에 사세요?』(온다프레스, 2023)를 출간한 서진영은 주장한다. "현재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인가를 가늠하기보다 얼마

나 여지가 있는 곳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달까." 여건보다 여지! 서진영의 위 진술이야말로 한 도시 또는 어느 지역이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 서진영과 춘천문화재단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에 소재한 출판사인 온다프레스는 이 책으로 2024년 10월 대전에서 한국지역출판연대가 주관하는 제8회 한국지역출판대상('천인독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화와 예술은 지역소멸 시대에 여건보다 여지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여지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공기'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지역은 한없이 우울하다.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공기와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공기는 '생기'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지역과 도시가 더 빨리 사라진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지난해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 세 곳의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속·고·양 고 이스트 포럼 인 고성(Go-East Forum In 고성)'에서 기조 발제를 한 내용의 일부를 여기에 옮긴다.

"지금의 귀촌(歸村) 정책은 귀촌(貴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일본 가미야마[3] 사례처럼 총력(總力)이 아니라 촌력(村力)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역 스스로 재미있게 추진해야 하며,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를 고민하려는 인력 양성 사업 또한 즐겁게 시행해야 한다. 지역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젊은 사람(여성)을 환대하려는 정책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 사람의 인력(人力)이 지역에서 '자석같은 향기'(故 이태석 신부)를 내뿜는 '인력(引力)'의 힘으로 작동하며, 사라지는 도시가 아니라 '살아지는'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어쩌면 그런 도시는 소위 '노잼시티'가 아니라 '설렘시티'일 것이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나우토피아(nowtopia)'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한다."

고영직, 『사라지는 도시, '살아지는' 도시』 중에서)

'1인칭'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다양한 지역'들'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다. 춘천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도시가 살롱'과 '모두의 살롱'은 춘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기댈 수 있는 사람,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이라는 도시의 비전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부산 영도구에서 추진하는 '똑똑똑 예술가' 사업은 동네의 예술인과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주민을 연결해 예술을 배달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해 조촐한 자립 축하 파티의 장을 마련한다. 엊그제 전남 해남군에서 만난 '일상판타지'라는 단체는 지역주민과 '우리들의 해방장'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소한 물건을 사고팔며 지역에 사람을 남기는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 장터에서 오가는 것이 물건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해 마시라. 응당 도시와 지역의 여건을 만드는 일은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여건을 만드는 일은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구'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과 도시의 주인은 시장(市長)도 아니고, 시장(市場)은 더욱 아니며, '시민'이라는 공론장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문화적 도시에 살고 싶은가를 시민들이 논의하고

3 일본의 산간마을 가미야마(神山)는 한때 인구 2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으나 임업이 사양화되고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며 2015년에는 인구가 5천 명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민간 단체를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결과 학령인구(만6~21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여개의 벤처기업이 가미야마에 자리를 잡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합의해 가야 한다. '시민력(市民力)'이라는 가치가 지역 현장에서 다시 강조되며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가 소환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과 도시가 조금 다른 지역과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생태 교통으로 하나가 되는 도시 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주거·교육·공원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며, 자유롭고 열린 마을이 되었으면 한다.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시민이 지닌 문화·지식·테크놀로지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용남이 쓴 『기적의 도시 메데진』(서해문집, 2023)에는 시(詩)가 도시를 되살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건강 도시'를 추구하며 마약의 수도에서 전 세계 도시의 롤 모델이 된 콜롬비아의 메데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퍽 흥미진진했다. 메데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신하는 도시가 되었다.

지역의 '공기'는 바뀌는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역과 도시에 대해 "안 돼요", "없어요", "못 해요"라며 '노(no)답' 3종 세트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과 도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재미'와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 재미있는 일이 된 케이스를 우리는 일본 가미야마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지역의 주인은 '나'라는 1인칭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문화예술 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상투적인 인식을 바꾸고 지역의 공기와 분위기도 바꿔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동네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춘천에서 열린 '2024 문화도시 박람회'에서 고윤정 부산 영도문화도시센터장이 최근의 로컬 붐 현상에 대해 "브랜드(brand)만 있고, 브랜딩(branding)은 없다."라고 한 말은 매우 적절한 비판이었다. 결국 브랜딩은 시민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공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인칭의 마을'들'이 모여야 한다.

고영직 문학평론가

사람은 이야기로 구성된다고 믿는 인문주의자이며, 수년 전부터 '동네지식인'을 자처하고 있다. (생애)전환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아 『생애.전환.학교』를 기획하고 집필했으며, 요즘 '코너리즘'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1992년부터 문학/문화비평 활동을 시작했고, 『천상병 평론』, 『인문적 인간』, 『삶의 시간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행복한 인문학』 등의 책을 썼다. 여전히 호기심이 많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SQUARE 02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 예술정책의 현재와 과제

김민경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점차 심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매력을 강화하며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20대 정부의
지역문화예술정책 현황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논의해 본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생활인구에 주목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며 인구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법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생활인구는 ① 주민등록인구, ② 체류인구, ③ 외국인등록인구로 구분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됨을 나타낸다. 즉,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정주인구의 증가만을 고민하던 상황에서 비정주인구의 유입 증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수의 관련 사업은 저출생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주로 주민등록인구의 유출은 막고 체류인구의 유입은 증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다.



생활인구와 문화예술정책의 관계

문화예술정책 측면에서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은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며 외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 된다. 실제로,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이주 및 정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 교통, 교육 여건과 같은 요소가 이주의 주요 결정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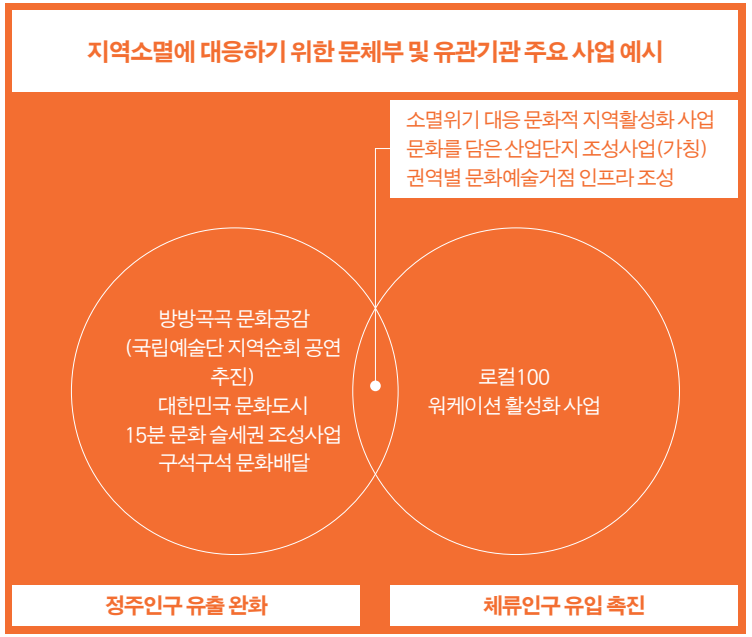
영국예술위원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은 거주할 지역을 선택할 때 문화예술 시설과 행사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 환경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inson et al., 2019) 미국 역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얼마나 가까운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풍부한지 등이 정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9) 우리나라에서도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문화시설 및 서비스'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은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 불평등을 '일자리' 불평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었고,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보다 '문화·여가 생활 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이는 이제 단순히 일자리만으로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문화적 요소가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인구 유입과 유출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수준의 향상이 중요한 요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예술정책 현황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두 계획은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를 문화로 해결해야 할 정책의제로 명확히 규정하며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의 관련 사업은 크게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방문·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나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국립예술단 지역 순회 공연 지원사업)', '대한민국 문화도시', '15분 문화 슬세권 조성', 지역문화진흥원의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로컬100',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사업은 전자와 후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2024년부터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방문·체류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기반하여 문화적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먼저 지역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된 지역에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원 대상을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재단이나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소멸 위기 및 관심 지역에는 대부분 기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문화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규모나 내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업 추진의 동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체부가 주요 주체로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가칭)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24년부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은 산단 입주 기업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전시, 공연 등의 기획과 개최를 지원하며 산단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결국 낙후된 산단에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완화하고 반대로 유입되도록 하는 데 문화예술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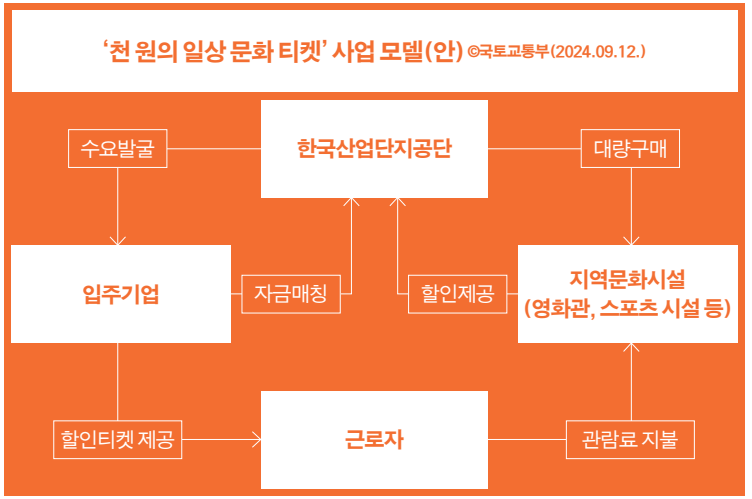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적 환경 개선 사업은 정주인구의 유출 완화와 체류인구의 유입 증가에서 나아가 지역발전을 선도할 첨단기술 기업의 투자와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기업은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 내 활발한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존재가 관련 산업군을 선도하는 인재의 유치와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Florida, 2014). 지역 소도시 수준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정주인구의 유입 및 경제발전 성과를 창출한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Markusen, 2023)

발전 방향과 과제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과 함께 지역 예술인과 단체를 포함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문화예술활동의 다양성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자원이 매력적인 콘텐츠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기반시설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연이나 전시를 넘어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이제 어쩌다 한 번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을 방문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미술관에 가서 산책이나 요가를 하고 작품에 대한 생각과 삶을 함께 나누며, 도서관에 가서는 책을 빌려 볼 뿐만 아니라 소규모 라이브 콘서트도 즐기는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그와 연계하여 기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편이다.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은 대체로 산단 입주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 기회가 아무래도 대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적은 편이다. 국립예술단의 순회공연과 같은 일회성 향유 지원이나 산단 내 시설의 확충에서 나아가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지역 기관 또는 예술단체의 접점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공연단체 티켓 구매 시 지역화폐를 통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거나 지역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문화패스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지역소멸 위기는 복합적인 위기이다. 문화예술, 산업, 일자리, 주거,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연쇄적 문제인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따로 또 같이 사업을 진행하되,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권 보장과 도시계획,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분야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예술정책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획일화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의 문화자원 네트워크가 소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매력을 높이면 서울·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다양성과 고유성(originality)도 높아진다. 이는 결국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소통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거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활동의 다양성을 살림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 체류인구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Parkinson, A., Engeli, A., Marshall, T., Burgess, A., Gallagher, P., & Lang, M.(2019),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in place-shaping. Wavehill,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2019). The Arts in Neighborhood Choice.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총괄 편』.

Florida, R.(2014),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visted.

Markusen, A.(2023), Arts and Cultural Innovation as Small city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37(1).

김민경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학 박사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는 부산연구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두고 문화시설 활성화, 지역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정책 설계와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과 문화정책을 넘나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문화예술과 도시가 상호 발전하는 다양한 정책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문화예술 세계도시와 충주

신재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문화예술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영국의 리버풀, 에스토니아의 탈린 등 산업의 쇠퇴와 지역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는 생기를 되찾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함께 2025년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충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 2년간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7개국 20개 도시와 문화 교류를 넘어 협업을 진행해 왔다. 미국 시사이드시의회와 충주시의회가 교류하며 충주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선보였고, 미국 포틀랜드의 파머스마켓에 참여하며 포틀랜드주립대학(PSU) 및 아시아태평양문화센터(APCC)와 파트너십 구축을 하였다. 또한 영국의 문화도시 브래드포드(Bradfor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올해 11월에는 2026년 유럽 문화수도 오울루(Oulu)와의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충주의 젊은 예술인을 브래드포드에 파견하여 양 센터 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예술인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년간 충주와 교류한 도시 중 예술과 문화로 변화한 도시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한다. 관련 자료의 분석과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예술감독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에스토니아의 '탈린': 문화예술로 경제적 활기를 되찾다

탈린(Tallinn)은 에스토니아의 수도로 중세 건축물과 현대적인 문화가 조화

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특히 구시가지의 역사적 유산과 현대적인 예술 장소가 어우러져 매년 관광객 약 300만 명이 방문한다. 2011년에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로 선정된 이후, 도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시내의 중심에 있는 기차역인 탈린 중앙역(Tallinn Balti Jaam)을 중심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구시가지의 반대편에 있는 카라마야(Kalamaja)와 텔리스키비(Telliskivi) 등의 산업 지역이 놀랍게 바뀌었다.

카라마야는 이전에는 주거와 산업 지역이었으나 유럽 문화수도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적인 문화와 창의적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탈린 중앙역 바로 옆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발티야마시장(Balti Jaama Turg)이 있다. 이 시장은 매년 관광객 20만 명이 방문하는데 전통적인 농산물 시장에서 혁신적인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재개장하여 신선한 식료품과 특산물부터 수제 공예품, 빈티지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음식 축제와 에스토니아 공연, 예술 및 공예 워크숍 등으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텔리스키비 지역은 과거에는 공장 지구였으나 유럽 문화수도 기간을 통해 현대적인 창의성과 역사적 배경이 풍성하게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이곳은 텔리스키비 창의 도시(Telliskivi Creative City)로 불리며 문화수도 이후 예술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며 250개 이상의 갤러리·스튜디오·공연장 그리고 예술인이 운영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상점·음식점·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2023년에는 주말 시장, 예술 축제, 공연 등의 문화 행사 약 300개가 활발하게 개최되었는데 약 2만 5천 명이 문화예술을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방문객의 60%가 거리 예술을 관람하기 위해 이 지역을 찾았다고 한다. 특히 이 지역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독특한 숙박 시설이 있는데 이는 텔리스키비의 산업적 유산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결합한 것으로 매년 2만 명 이상에게 인상 깊은 숙박 경험을 제공한다.

이 두 지역의 변화는 탈린의 경제적 활기로 이어졌다. 『유럽 문화수도 보고서』에 따르면, 카라마야와 텔리스키비의 부동산 가치는 유럽 문화수도 프로젝트가 열리기 전보다 평균 20% 이상 상승했으며 신규 고용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발티야마시장과 텔리스키비 창의 도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주민에게도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지역 커뮤니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2.
영국의 '리버풀':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다

리버풀(Liverpool)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산업 쇠퇴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한때 번창했던 항구 지역은 낙후되었고 높은 실업률과 인구 감소로 도시는 생기를 점차 잃어갔다. 리버풀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센터인 블루코트(The Bluecoat)는 예술적 잠재력을 지닌 장소였으나 당시 리버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그 활동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리버풀은 역사적 유산과 더불어 '비틀즈'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2008년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이후 리버풀은 빠르게 변화하였다. 『유럽 문화수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7천만 파운드(약 1조 1,76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문화 투자와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약 350개의 문화 이벤트와 예술 프로젝트가 도시 전역에서 개최되어 9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베를린필하모닉의 공연과 테이트 리버풀의 현대 미술 전시 등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은 리버풀을 국제적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변화시켰다. 총 관람객은 수천만 명이었고 시민들은 쇼핑보다 다양

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더 많이 언급했으며, 공연장을 언급한 사람이 술집이나 클럽이나 나이트 라이프를 언급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는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그해 7억 5천만 파운드(한화 약 12조 6천억 원)의 경제적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통계는 리버풀의 문화적 자산이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리버풀의 대표적인 아트센터인 블루코트는 유럽 문화수도 기간에 예술적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곳은 다양한 국제 전시와 지역 예술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블루코트 주변 상가는 이러한 문화적 부흥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상점, 갤러리, 카페 등은 새롭게 문을 열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여 평균 매출이 15~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 가치도 증가하여 임대 및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제공했다.

3.
미국의 '포틀랜드': 예술교육으로 세대간 교류를 강화하다

포틀랜드주립대학교는 포틀랜드 도심에 위치하여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지역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포틀랜드는 이 대학 학생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플렉스 패스(Flex Pass)'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포틀랜드 전역에서 학습과 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했다.

이 대학의 예술학부는 포틀랜드시와 협력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 대상의 커뮤니티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 공연과 전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작품 개발 등이 있다. 특히 매년 열리는 '첫 번째 목요일 예술 산책(First Thursday Art Walk)'은 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도시 내 갤러리와 공공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협력해 실험적인 연극과 콘서트, 거리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결집하고, 해당 학과의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인터제너레이셔널 아트 프로젝트(Intergenerational Art Project)'는 다양한 세대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커뮤니티의 회복과 연계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어르신과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이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공동으로 벽화를 그리거나 즉흥 연극을 준비하여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술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연결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문화예술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다

잘츠카머구트(Salzkammergut)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마지막 장면의 배경인 할슈타트(Hallstatt)와 온천 도시 바트이슐(Bad Ischl) 등이 유명하다. 이 지역은 매년 관광객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관광산업으로 연간 약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4년 유럽문화 수도

로 선정된 후에는 관광산업에 문화적 풍요로움을 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잘츠카머구트의 프로그램은 지역 내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Community Art Project)'는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대형 벽화나 지역 문화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다양한 세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작업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특히, 두 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공예 워크숍 '핸즈 온(Hands ON!)'은 지역 예술인의 전통 공예를 배우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의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5.
영국의 브래드포드: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화합하다

2025년 영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브래드포드는 5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요크셔 지역의 다문화 도시이다. 이 도시는 충주와 비슷하게 영국 중심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양털 방직 기술이, 현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 인구의 4분의 1이 18세 미만인 젊은 도시로서 도시의 혁신과 활발한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래드포드는 청소년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내셔널 키즈 커넥션'은 지역 청소년이 전 세계의 또래 세대와 문화 교류를 하며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펜팔 프로젝트,

온라인 문화 교류 세션, 교차 문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커뮤니티 레시피 교환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고유의 음식 조리법을 서로 공유하고 각 문화의 독특한 맛과 전통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축제와 커뮤니티 대화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다문화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에게 리더십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충주의 변화를 꾀하다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한 도시들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책 설계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시민의 요구와 미래상을 인터뷰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조사하고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8년까지 각 도시가 지닌 특성에 맞게 정책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지난 3년간 충주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3,800여 명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하였다. 그 결과, 충주에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주는 사실 조선 후기에는 남한강 수운의 최대 중심지인 '목계나루'(현 충주시 엄정면 소재)에서 물류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시의 규모가 전국에서 2~3번째였던 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충주는 교류를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연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수상불꽃극 〈호수 위 우주〉를 불꽃극 전문 공연예술 단체 '예술불꽃 화랑'과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 공연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시 지어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조정 경기 관람석)' 1,000석을 관객석으로 활용하여 탄금호의 뛰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난 2년간 유료 관객 7,800명을 끌어모아 객석 점유율 95%를 기록했다. 특히 공연 후에는 입소문을 타며 매일 현장에서 약 100매의 입장권 구매가 이뤄질 정도로 큰 성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호수 위 우주〉는 충주 시민의 자부심이 되었으며 도시에 새롭고 활기찬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 복원한 근대 건축물인 옛 조선식산은행(현 '아트뱅크 243')에서는 올해 9월 초, 음악 전문 미디어 '엘이맥(LEmag)'의 주목을 받은 한국형 개라지 파티(Garage Party) 〈레이크비츠(LakeBeats): 충주본색〉을 이날치, 이박사, 윈드 시티 등의 아티스트와 함께 개최하였다. 이 공연은 서울 사람들도 충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새로운 문화적 효과를 누렸다.

이와 함께 충주의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기도 하고 충주의 예술단체가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포틀랜드 파머스마켓에 진출하여 로컬 브랜드 문화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충주 예술단체가 오스트리아, 핀란드, 미국 등 총 7개국 9개 도시에 진출하였는데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충주는 항공료 등 일부 비용만을 부담하고 해당 지역의 파트너사가 공연장, 기술 및 공연료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또한 충주를 방문한 영국 문화도시 예술감독 및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충주의 다양한 예술인의 쇼케이스를 열어 해외 홍보와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2025년 영국 맨체스터 및 유럽에서 열리는 축제와 핀란드의 국제 아틀리에 등에 충주의 예술인이 참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도 각 도시에는 각자의 소명이 있다. 기존의 성공한 프로그램을 차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도시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특성에 맞춰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써 도시의 새로운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신재민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문화와 예술로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몽상가로 마당의 가치와 문화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는 지역 전문 문화기획자이자 공연 제작자이며 축제에서는 감독의 역할도 수행한다. 극단 '미추'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경상도(포항, 경주), 전라도(여수), 충청도(충주)를 거치며 각 도시의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SOCIAL CARE 04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문화예술 극단 '큰들'과 산청마당극 마을

권재현 문화학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경남 산청의 마당극 전문극단 '큰들'은 지역 기반 창작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극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인구 소멸과 지역문화의 위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극단 큰들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본다.

극단 큰들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다

경남 산청군에는 '큰들'이라는 마당극 전문 극단이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배우 40여 명과 그들의 가족이 7년째 한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다.

마을엔 유난히 꼬리를 잘 흔드는 강아지 '살랑이'도 있다. 몇 년 전 마을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어린 강아지를 마을에 데려오는 문제였다. 젊은 배우들은 키우자고 하고 다른 이들은 반대했다. 생명체를 데려와서 키우는 문제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연으로 마을을 비우는 날이 많은데 강아지를 키운다면 누가 주로 키워야 할지도 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수입이 불안정한 마을의 재정도 고려 대상이었다. "아프면 사람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팽팽했던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는 몇 차례 더 열렸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작은 생명체'를 '공동으로 육아하기'로 결정했다. 강아지의 보호와 적응 교육을 모두가 책임진다는 조건이었다. 마을엔 고양이 세 마리가 이미 살고 있었다. 강아지의 입성은 영역 동물인 고양이들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선배 배우들은 고양이의 샴푸와 이불을 강아지에게 사용했다. 동네 주민으로 살아야만 가질 수 있는 냄새를 작은 생명체에게 입혀준 것이다. 꼬리를 잘 흔들어서 얻은 환대의 이름 '살랑이'는 이제 7살이 되었다.

필자는 큰들의 예술감독이자 촌장인 전민규 감독과 동시에 내뱉은 간디(Mahatma Gandhi)의 다음 말로 묘한 동지애를 느끼며 한없이 길어질 저녁 막걸리 시간을 예상하였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극단 큰들의 창단 원칙

큰들은 창단 후 지금까지 지키는 원칙이 있다.

첫째, 단원 모두 화합하자. '예술인은 왜 가난해야 하는가'라는 명제가 이 원칙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공연으로는 먹고살기가 힘들 수 있으며, 예술 행위의 결과가 돈의 크기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시작한 일이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남을 즐겁게 하는 공연의 행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창작을 하는 극단이 되자. 우리만의 레퍼토리 공연은 극단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힘이다.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단원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게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기회가 된다. 또한 빌려온 작품으로 소모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지속 가능한 극단 운영의 밑거름이 된다. '내 작품이 있는 극단'은 멈춰 있지 않으며 다양한 실험을 쉼 없이 만들어내는 극단의 다른 이름이다. 현재 큰들은 조선시대 남명 조식(南冥 曺植)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마당극 〈남명〉, 문익점의 이야기를 다룬 〈목화〉 등 7개의 레퍼토리를 가진 제작 극장이다. 〈오작교 아리랑〉과 〈효자전〉은 320회를 넘긴 장수 레퍼토리가 되었다. 개인기보다는 배우들의 앙상블이 빛나는 공연이 되도록 배우들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매번 같은 걸 영혼 없이 보여주는 공연은 관객 모독이라 여기고 공연마다 하나의 동작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한다.

셋째, 지역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을 하자. 진주, 사천을 거쳐 7년 전 산청으로 이주하여 느낀 점은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인물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의 이야기로 탄생된 공연을 관객이 가장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게 된다. 이는 동네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행정의 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는 "다른 문화로 들어가는 길을 느끼려면 자기 문화의 삶의 방식을 더 완전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큰들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을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즐겁게 결합하는 중이다.

넷째, 박수만 치는 관객이 아닌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자. 시민배우단 실험은 20여 년 전에 시작했다. 시민 130명이 6개월 동안 주 2회씩 연습하여 무대에 선다. 7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배우는 주인공이 되는 예술적 경험뿐 아니라 새로운 통찰로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일은 자신 안에 갇혀 있던 타자성을 대면하게 하고 '타인과 일정한 보편성을 공유'하게 한다. '130명'은 무대 공간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배우의 인원수이다. 2회 공연에 회당 1,000명이 볼 수 있는 유료 공연은 매년 매진을 달성했다. 극단 큰들은 지원자 중 '가족'과 함께 신청한 지원자를 우선으로 뽑는다. 이렇게 선발된 시민 배우들은 주체적인 무대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매진 사례 공연의 주인공이 된다.

다섯째, 후원 회원을 만들자. 공연 판에서 '살아남기'가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이 많다. '예술하기'의 목표는 '살아남기'에 밀려 '예술인=가난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렸다. '예술만 하기'가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 할지라도 창작을 할 수 있는 자금과 최저생계비 확보는 극단의 목표가 되었다. 27년 전 풍물을 계기로 만난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술을 사 주는 대신 정기후원을 하고, 풍물 교육을 받은 이들이 회원으로 힘을 보태며, 공연을 본 관객들이 새 후원 회원이 되어 현재 후원자 약 2,400명을 둔 극단으로 성장하게 되

었다. 산청으로 이주를 결정한 후 바로 터진 코로나19 팬데믹 3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회비 덕분이다.

관계인구 만들기의 미학: 후원 회원

큰들의 후원 회원은 현재 약 2,400명이다. '큰들 산청마당극마을'의 탄생과 현재 '극단 큰들'의 꾸준한 활동 및 창작의 힘은 후원 회원의 역할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산청으로 이주를 결정하면서 마을 터와 극장이 들어설 땅을 매입할 자금이 문제가 되었다. 배우들의 살림살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2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후원 회원들의 도움이 시작되었다. "예술의 목적은 우리의 충동 에너지를 기쁜 만족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문화비평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말을 실천할 예술인이 거주할 마을과 '까망극장'이 기적처럼 시간에 맞춰 완성되었다.

큰들이 후원 회원을 대하는 방식은 놀랍다. 공연은 '전석 매진'을 목표로 관객 개발을 한다. 공연의 주제와 작품의 완성도, 새로운 수요 개발과 기존 관객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공연장 접근성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통상 극단의 후원 회원을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노력만큼 관객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큰들의 회원 중 20년 이상 특별한 가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은 300명 가까이 된다. 10년 이상 후원을 유지하고 있는 분은 700명 가까이 된다. 긴 호흡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마을 터를 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준 용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큰들이 가족을 만드는 방식은 진정성에 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요하스(Hans Joas)는 '가치의 탄생'이 발현되는 지점에 대해 "가치는 규범이 아니

며 어느 구체적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경험을 통해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소중하다는 강한 감정, 그래서 거기에 이끌리고 갈구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큰들이 관계인구를 만들고 후원 회원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큰들의 예술 행위에만 있지 않다. 후원 회원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동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회원을 대하는 큰들의 일상을 소개한다. 첫째, 3,000평의 땅에서 직접 농사지은 쌀 1kg씩을 매년 회원에게 보낸다. 둘째, 특별한 날에는 안부를 묻는 손편지를 보낸다. 생일을 기억하고 가족이 된 날을 기억한다. 셋째, 천재지변을 당한 지역의 회원을 함께 걱정한다. 태풍이나 지진, 폭우로 회원의 안전이 걱정될 때 안부를 묻는다. 넷째, 타 지역에서 극단의 공연을 할 때 해당 지역 회원에게 초청 문자를 보내고 공연장에서 만나면 작은 선물로 반가움을 표한다. 특별 초청 공연일 경우, 회원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회원의 사는 지역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한다. 당신의 후원이 전국의 공연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들과 가장 밀접하고 충성도 높은 '관계 인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다.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기: '무덤이 생겨야 동네 사람이 된다'

지역으로의 진출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요소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이다. 큰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마을 이주와 거주가 행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마을 살이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길막' 행위로 진입로에 상주하는 마을 어르신도 있었고, 진입로에 있는 맹지인 자기 땅을 사 달라는 어르신도 있었다. 땅을 매입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어렵게 해결하였지만 이성의 머리로 무장한 사람들

에게 어르신들의 억지는 미칠 노릇이었다. 또 마을 회의가 열렸다. 어르신들의 조건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쪽의 의견이 강했다. 이 마을의 회의는 천주교의 콘클라베(conclave)[1]처럼 결론이 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 공연 후 단원 사이에 감정의 문제가 생길 때도 같은 방식으로 마을 회의를 한다.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앙금을 지워가는 방식이다. 긴 회의를 거쳐 마을 어르신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저희는 언제쯤 이 동네 사람이 될까요?" 어느 날 마을의 한 어르신께 여쭤보았다. "동네에 들어와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죽어서 마을에 무덤이 생기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야 한동네 주민이 되지."라고 답하셨다.

매년 3박 4일 동안 마을 잔치를 연다. 첫날 공연은 오로지 마을 주민의 초청으로 진행된다. 마을을 지나갈 때 우리 차량은 50km 이하 운행, 경적 금지 등의 원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길막' 어르신은 이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시는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셨다. 겨울에 공연이 없어서 공연 차량의 운행이 뜸할 때는 어르신들의 걱정 어린 말씀을 들으며 너무 빨리 '동네 주민'이 된 착각에 빠진다.

마을에 활기가 생겼다. 산청군에 외지인의 방문이 잦아졌다. 산청을 방문하는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큰들 산청마당극마을 방문과 단체 공연 관람이 포함되었다. 전국의 다양한 단체의 관람 문의는 산청 방문객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큰들이 인연을 이어온 일본 공연팀과의 교류 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작은 마을에 외국 공연 단체가 끊임없이 방문하고, 극단은 일본의 큐슈, 도쿄, 시모노세키, 삿포로와 오스트리아, 라오스 등지를 다니며 한국의 마당극을 알리고 있다. 마을 주민에게 한 양보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다. 고립되지 않으려고 한 노력으로 마을 담장을 훌쩍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1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비공개 회의. '열쇠로 걸어 잠그는 방'이라는 뜻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된 채로 투표가 진행되며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나올 수 없다.

큰들이 60년 후 맞이할 100주년을 위해: 가치의 생성과 인구 소멸에 대한 문화적 대응

2021년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하였다. 인구 소멸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인구 2만 명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마지노선이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50년 안에 지방자치단체 78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인구 소멸은 도시의 기능 소멸로 인해 문화 소멸로 이어진다. 최소 인구는 지역의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이 버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380조 원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 세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인구 소멸을 막아보려는 노력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참히 실패로 끝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여건의 개선과 문화적 복지 증진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에서 문화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모두 똑같을 수 없다. 지역마다 환경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사회학자 헤럴드 가핑클(Harold Garfinkel)의 규범주의 이론은 인간이 사회의 정립된 문화를 주입받는 것에 대해 '문화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의 해법은 지역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도로 찾아야 한다. 산청의 극단 큰들이 펼치고 있는 문화적 대응은 그 내용을 안다고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타자를 대하는 태도와 환대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이는 관객 개발로 이어지고 마을 주민과 상생하는 지혜를 찾는 데 활용된다. 극단의 배우이자 마을 주민이 소통하는 방식은 신뢰를

바탕에 둔 화합이다. 극단의 철학은 창작 레퍼토리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관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실험을 통해 시민 극단으로의 확장을 꾀하게 되었다. 큰들의 충성 고객이자 든든한 지원군인 후원 회원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예술적 공감대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 지역마다 인구 소멸의 문제를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전력하고 있다. 하지만 큰들이 끈끈한 '관계인구'를 늘려 간 방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작은 공연단체의 입주가 만들어낸 산청의 변화는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를 만들었다. 예술의 본질은 '가장 개별적인 것을 통해 전체와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올해 큰들이 창단 40주년을 맞이했다. 지역 인구와 문화 소멸의 시대에 극단 큰들의 모습은 60년 후 '100주년 극단 큰들'을 상상하게 한다.

권재현 문화학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심의 및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21–2022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총감독,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총감독을 맡았다. 현재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성동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임 중이며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감성과학회 이사로도 재임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인들과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현장 파트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예술기관입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해 2005년 현장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거듭났으며,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 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장르별 예술가를 위한 창작 지원부터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지원, 문화예술을 위한 후원 시스템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이 세상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술가가 마음껏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여건과 문화적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 추세 완화에서 나아가 인구 유입 견인을 위한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문화재단 또는 민간단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된 6개 기관(단체)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약을 맺어 공동 수행하는 기획형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

지역 단위 종합적 접근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운영부터 창작 프로젝트까지
종합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력형 추진구조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연계, 협력 구조 운영을 지향합니다.

사업 수행 기관

지역		단체
수도권	인천광역시 강화군	협동조합 청풍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탄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영남권	경상북도 영주시	클라우드컬처스
	경상북도 울릉군	노마도르
호남권	전라남도 강진군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소멸 너머 예술

2024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활성화
사업
아카이브

발행인
정병국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

기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협력팀

사진
Studio Kenn

편집
박채림

디자인·제작
designikki

ISBN
979-11-966687-9-2 93600

Copyright ©2024 Arts Council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사진은 ARKO(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